

#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이 훨씬 많다

(기도에 대한 통념을 뒤바꾸어라)

박진호 지음

“왜 오직 예수인가?”

[whyjesusonly.com](http://whyjesusonly.com)

## 목차

들어가면서.....	1
(창 12:5-10) 모르고 지나치는 기도의 핵심 .....	5
(창 12:8-11) 아브람의 첫 기도부터 응답되지 않았다 .....	17
(창 13:1-4) 기도내용을 계속 바꿔야 응답받는다 .....	29
(창 13:14-18) 우상의 본거지에 살겠다는 기도를 하라 .....	41
(창 14:13-16) 기도응답 잘 받는 최선의 방안 .....	53
(창 18:16-25) 기도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바꾸어라 .....	65
(창 18:23-26) 주기도문의 구약성경 버전 .....	77
(창 20:1-7 & 17,18)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로 기도하라.....	89
(창 22:1-8) 믿음이 완성되어야 기도도 완성된다 .....	102
(마 6:9-15) 세 가지 단계로 기도를 발전시켜라 .....	114
(마 18:15-20) 합심하여 기도해 무엇이든 풀어라 .....	126
(막 11:20-25) 기도하면 무엇이든 받은 줄로 믿으라 .....	138
(눅 11:5-13)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된다 .....	150
(요 14:12-15) 기도하면 예수님보다 큰일을 할 수 있다 .....	162
(창 12:1-3)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해도 .....	174

##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사역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로 주님도 기꺼이 주도적으로 골고다 처형장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는 반드시 그 시각 그 장소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뤄져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십자가 처형은 객관적으로만 따지면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에 따라서 로마 당국이 집행한 것입니다.

인자로 오셔서 당신만의 자의와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수행하셨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교육, 상담, 치유, 이적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도였습니다. 공사역 기간 3 년 내내, 물론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주님은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천국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막 1:35) 주님 스스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 5:19)고 했고 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냐 죽은 자 나홀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낼 때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도 모든 사역을 속으로 기도하면서 행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도 앞으로 온갖 핍박을 받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선 잘 알다시피 당신의 십자가 처형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땀이 피로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당신들의 원수를 사해달라는 기도까지 하셨습니다.(눅 23:34)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라고 큰소리로 외쳐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당신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친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다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를 반추해보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운명하기 직전에 의식이 있다면 심지어 불신자라도 자기 영혼을 절대자에게 의탁하는 기도는 할 것입니다. 그럼 너무 늦은 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평소에, 가능한 일찍부터 기도의 삶을 살았다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여러모로 훨씬 더 보람차고 유익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뤄지고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까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평소에 주님처럼 기도가 일상화되어있지 않으면 인생의 낭비이자 큰 손해일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약속한 열매를 따먹을 생각도 않고 있으니 바보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그것도 신앙연륜이 오래된 사람들마저도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당신의 모든 계명이 사실상 그러하지만, 각자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명했으나 금방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날 밤에 평소와 달리 뭔가 비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느끼고도 그랬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기도했겠지만 밤이 깊어감에 피곤하기도 하고 금방 기도할 내용이 떨어져 그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중요성은 물론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절대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에도 그렇다면 평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자들이 기도를 등한시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제대로 응답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큰 환난이 닥쳐서 간절히 오래 동안 기도했는데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덧나는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차츰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이럴 거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심까지 생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점점 기도 대신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들고 세상의 전문가나 권력자들을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신이 나서 열심히 쉬지 않고 미주알고주알 아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신자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체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작금 교회에선 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자들도 현실적 문제와 고난을 천일 제단 쌓듯이 최고의 치성을 바치며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덩달아 믿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것 아닙니까? 아니면 큰 환난이 생겼으니까 어차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체념하고 그치면 되는 것입니까?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기도의 권능과 은혜는 너무나 고귀하고 강력합니다. 그것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오히려 반대로 더더욱 강조하려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현실 고난이든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계획한 일이든 무엇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단 기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껏 기도의 권능과 열매에 대해선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고 교회에서도 구원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열심히 가르쳐져 왔습니다. 기도를 동일한 관점으로 다시 접근해야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신자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차원이나 교회에서 부족하게 가르쳐진 사항들을 찾아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한 내용까지 성경이 최초로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행한 중보기도입니다.(창 18:22-33)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도 또한 응답되지 않았습니

그런 중보기도를 하게 된 연유도 그 전에 많은 기도 실패가 뒷받침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 기사들을 통해 신자가 기도할 내용부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고 나아가 기도응답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립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뤄지고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들도 과연 어떤 뜻인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히 믿기만 하면 되지 꼬치꼬치 따져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 중에도 당신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다시 풀어서 설명해주었고 때로는 꾸중도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는 제가 근 이십여 년째 행하고 있는 인터넷 문서사역을 통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신자들이 열심히 시행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신앙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9 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5 회 살펴본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서 기도의 본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글들이 기도에 대해서 폭넓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2 년 4 월 미국 엘에이에서

## (창 12:5-10) 모르고 지나치는 기도의 핵심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 12:7-10)

제가 2003 년부터 섬기고 있는 인터넷 목회를 통해 신자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궁금해 하는 주제는 '구원'과 '기도'였습니다.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수준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성경이 계시하는바 진리와 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 질문했겠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성경과 다르게 이해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되 둘 중에 비교적 간단한 주제인 기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기도의 능력 은혜 열매 등 긍정적인 측면은 더 보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가르쳐져 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미처 다루지 않아서 신자들이 기도에 대해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기도부터 점검해보려 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기에 그가 행한 기도 안에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뜻이 드러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아브람이 행한 최초의 기도

아브람은 먼저 세겔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7 절)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인데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가 그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주셨기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때는 성경은 물론 유대교도 형성되기 전이라 여러 방식의 직통계시는 일상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람 쪽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감사와 경배의 고백도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절로 감사가 나오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맛보면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행하는 감사나 경배에는 신자 쪽의 소망과 계획은 포함되지 않고 또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못될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신자들이 자신의 필요나 목적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신자가 하나님 당신과 그분의 뜻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를 모르거나 오해하면 기도 또한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변질 될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람 쪽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8 절)가 그런 기도입니다.

문제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만 했지 기도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감사와 경배의 단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분께 개인적으로 간구한 용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 “주여! 주여!”라고 반복해 외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발 나를 건져달라는 내용이 생략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 것으로 아주 훌륭한, 아니 가장 순전한 기도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마당이라 다른 아무 것도 필요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랍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출해 달라는 것 말고는 자기 이기심이나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계산이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오래 전에 저희 가족이 록키국립공원에 차로 여행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험준한 산의 꼬부랑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정말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절대 절명의 순간이 닥쳤고 아내가 다급하게 “주여, 주여!”라고만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차를 길가 언덕에 들이박았는데도 달려오던 속도 때문에 질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큰 SUV 가 그 낭떠러지 앞 공터에 주차하고 있었고 저희 차가 그 차와 충돌하면서 겨우 멈춰 섰습니다. 두 차만 손상이 갔고 아무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큰 차가 마침 그 시간 그 자리에 서있게 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한 가족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자기들만 알고 있는 산 밑의 폭포를 보고 싶어져서 그곳에 정차해놓고 계곡 밑에 내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을 확률로 따지면 수백만 분의 일도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일 수 없으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구해주려고 그 가족의 생각까지 주관하여 다 예비해 놓으신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조치했다면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 않았어도 어차피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순히 판단해선 안 됩니다. 신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지라 만약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면 다른 시나리오를 마련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구해주되 크게 다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될 시간과 여유가 없다면 또 그런 시간과 여유가 있어도 너무 큰 절망에 휩싸여 제대로 기도가 안 된다면 ‘주여’라고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입술의 말은 물론이고 마음의 생각과 깊숙한 심령의 상태까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간혹 하나님이 신자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자식이 먼저 도움을 청하길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귀찮고 싫다는 뜻이 됩니다. 땅 속에 아무리 생수가 풍족하게 흘러도 우물을 파지 않으면 마실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만의 큰 권능으로 신자를 보살피고 계셔도 기도로 그 은혜의 생수를 퍼내어 마셔야만 합니다.

## 아브람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이유

아브람이 여호와와 이름을 불러야만 했던 이유는 앞뒤 기록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거주하는 장소를 계속 바꾸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6 절), “벤엘 동편 산으로 옮겼으나”(8 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다”(9 절)고 세 번이나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람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번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지시한 땅을 지나거나 떠나버렸습니다. 먼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5 절) 그 땅을 통과해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라고 했으니 하란 땅에서 여호와와 지시를 받아서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거쳐 갔다고 합니다. 뭔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겜과 베델 둘 다 가나안 땅에 속하니까 처음부터 세겜으로 가라고 지시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겜의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으므로”(6 절) 다시 옮겼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은 나중에 가나안 9 개 나라들이 전쟁을 벌일 때 보면 그의 집에서 기른 군사가 386 명이나 되었습니다.(창 14:14) 가나안 족속들로선 이방인인 아브람이 그만큼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순순히 환영해주었을 리 없고 경계하면서 배척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은 세겜이라는 한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고 했으니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합니다.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는 설명도 나중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 훗날 아브람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나무인 상수리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우상 신의 산당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모레’라는 별칭의 뜻도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아이를 산 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갈대아 우르 땅이 너무 싫어서 떠나왔는데 가나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는 특별히 우상 신들의 소굴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로선 썩 내키지 않았겠지만 그곳에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다면 어쨌든 선조로 그곳에 정착해 가문을 일으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의 천대와 그곳의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 여건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는데 이 때 처음으로 여호와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는지 또 그가 기도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경한 이후 지금껏 제대로 장막을 칠 만한 장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들판이 아닌 산 위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끌면서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2)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람으로선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곳의 모든 사정이 특별히 영적인 상태가 자기가 떠나온 우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굳이 나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따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훼방을 받지 않는 산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축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기도란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로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방해가 없고 목축도 잘 할 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처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자신의 식솔들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장막 터를 달라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는 죄

이 짧은 기사에서도 기도에 대해 배울 사항은 여럿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주목해야 할 사항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모르거나 지나치지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에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이 점이 기독교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의 기도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도 그 조차 잘 모르니 기도 능력이 없고 이상한 기도만 계속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고 또 그래서 기도를 성실히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일이 닥치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자에게 도와달라고 빙니다. 갑자기 불치병이 걸리든지, 불시에 사업이 부도나서 길거리에 나왔아야 하든지, 부부사이가 파탄 나든지, 주변 사람들이 전혀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느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종교가 없기에 자기가 빌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장독대에 촛불과 냉수 한 그릇 올려놓고는 천지신명에게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며 형통을 빌었습니다. 천지신명(天地神明)이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신들의 구체적인 이름도 없고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막상 간절히 불러야 할 신의 이름은 부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가공할 위력 앞에 너무 무력하다는 사실을 많은 체험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생사를 좌우하고 특별히 불행을 준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제발 환난을 일으키지 말거나 빨리 그쳐달라고 전심을 다해 비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이름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발견하고 한탄을 했습니다.(행 17:23) 알다시피 그리스는 신들의 나라로 하늘 바다 천둥 바람 같은 자연 현상은 물론 결혼 사업 질병 등 인생사를 주관하는 신들이 각기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모든 신들에게도 정성을 바치니 제발 화를 내지 말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늘 바다 천둥 번개 바람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자연계 안의 엄청난 위력을 지닌 물건과 현상은 물론 그 정교하고 완벽한 운행 등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가 따로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롬 1:21-23)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우상을 믿는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리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땀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사 44:15-17)

인간이 자기 편의를 위해 나무를 불 태우고 남는 기묘한 형상을 조각하여서 그것에 절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에 자기가 절하는 웃지 못 할 희극을 벌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절대자에게 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비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죄이자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서 고난을 잠시 잊어버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은 사정이 조금 다른데 당연히 그 종교가 믿고 따르는 절대자에게 힘든 일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첫째로 그 신들의 성품과 능력과 통치원리가 성경의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예컨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서 원수는 반드시 복수해야 옳다고 가르치는 신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적 욕심을 버리면 고난에서 해방된다고 가르치는 신도 있고 스스로 우주에 대한 진리를 깨닫든지 죽어서 육체에 묶인 노예상태에서 벗어나야 구원된다는 신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죽어도 짐승의 모양으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돌려보낸다는 신도 있습니다.

본인들이야 자기들 종교 식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된다고 고집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럼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집니다. 세상만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여야 합니다. 한 분 신이 그렇게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정신분열입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분만 진짜 신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올바른 그 신을 찾을 노력부터 해야 하는데도 모든 신들은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자기들은 정신분열적인 신을 믿거나 그게 아니면 죄송하지만 자신들이 그런 상태라고 실토하는 셈이 됩니다. 그들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이런 간단한 영적 이치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응답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만에 하나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 쳐도 우연의 일치 아니면 사탄이 장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 하나님 그분을 알고 드리는 기도

반면에 아브람은 지금 분명히 여호와를 만났고 또 그분께 약속을 먼저 받고난 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그분이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바탕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아브람과 기도를 받는 하나님 사이에는 개인적 관계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천지신명에게 드리는 기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컨대 아브람은 여호와가 바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에 출석할 때는 성경을 아직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창조주 하나님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현실적인 고난을 해결 받으려는 목적뿐입니다. 저 또한 사업이 완전히 쪼딱 망한 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도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제발 이 제 문제를 어서 빨리 해결해달라는 기도만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응답을 받아 많은 고난들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런 과정 중에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응답의 시기나 방식을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연의 일치거나 내가 노력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런 진전되는 현상이 없다가 일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사건 사람 여건 등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십오 년 전 유학생교회를 담임할 때 일입니다. 자체 교회건물을 구입하려고 계약을 맺고 은행의 대출승인도 얻었습니다. 보증금 8 만 불을 납입하는 마감 하루 전까지 만 불이나 모자랐습니다. 더 이상 현금이 들어올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학생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다음 기회로 미루라는 뜻인가 보다 여기고 포기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루 전날에 뉴욕에서 교회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분이 딱 만 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되는 액수였고 우리가 만 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소름끼칠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금액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학생교회가 오히려 당시 그 지역에서 드물게 자체 교회 건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시키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는 했지만 이성적이라 합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유학생 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하려야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큰 환난 중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했어도 이처럼 기도가 응답되는 양상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권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몇 번 더 체험하고 나면 그분에 대한 경이로운 두려움마저 생기며 정말로 온전히 믿고 내 인생을 전부 의탁하고 싶어집니다.

순전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만의 때와 방식으로 문제를 단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주시고 부정적인 여파도 없습니다. 그 후로도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얹어지기에 신실하고 씬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서나 기도하되 이젠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톅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응답해주리라는 확신도 듭니다.



그분이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굳이 목청을 높여서 외치거나 내 감정을 동원해서 일부러 내 소원을 절실하고 급박하게 과장해서 표현할 이유도 없습니다. 담담하게 대화하듯이 내 심정과 소망과 계획을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 절실하면 절실한 대로 외치고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 흘려도 됩니다. 어떤 가장과 과장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겸손과 진정으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친밀한 교제로 이어집니다.

##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신자들이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작정 아뢰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시편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고 선언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자 권능입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당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는 일이 바로 당신을 영화롭게 만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듯이 일부러 환난을 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거의 전부가 인간 죄악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쪽으로 가기 바쁘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안타깝게 여기므로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는 않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당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밤중에 열이 오르고 아파서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 아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다 아이가 배가 고픈다, 머리가 아프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부모로서 그런 말만 들어도 너무나 기쁘고 곧바로 최선의 방안으로 해결해줍니다. 하나님도 신자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 바로 그런 심정과 자세로 신자를

대하고 계시므로 아이가 부모만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자기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연약한 인간 부모님은 때로는 자식의 유익보다 자신의 감정은 물론 자기 이익부터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원수 되었을 때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받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도 바꿀 만큼 신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환난 날의 기도를 듣고 구해주시길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분이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떠난 장소와 시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폐가 있지만 신자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도 신자 앞으로 다가와 긴장해서 듣기 시작하십니다. 신자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귀 담아 들어달라는 기도를 위한 기도부터 하고서 본격적으로 아뢰셔야 합니다. 기도에 반드시 또 첫째로 담아야 할 사항이 응답만 빨리 받으려는 우리의 욕심과 치성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정말로 받고 싶은 것은 평소부터 당신을 부모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해온 마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창 12:8-11) 아브람의 첫 기도부터 응답되지 않았다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창 12:8-11)

## 응답되지 않은 성경최초 아브람의 기도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호와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주민들의 경계와 냉대를 받아서 장막을 칠 장소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겜에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우상의 산당이 있는 곳인지라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온전한 거주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은 그 결과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이 발생해 애굽으로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벧엘 동쪽 산으로 옮길 때부터 그곳에 정착할 계획이 없었고 남방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산에서 잘 정착해보려고 기도하며 노력했으나 도저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기록은 없으나 남방으로 내려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혹시 여기가 주님이 주신 정착지인지 물었으나 확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도달한 남방은 팔레스타인과 애굽 사이의 네게브로 베두인이라는 소수 민족이 목축으로 살아가는 건조한 사막지역입니다. 그런 척박한 곳까지 가야 할 정도로 가나안 족속의 훼방이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남방에 이르자 심한 기근이 들었는데 옆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쪽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기근이라 도움을 얻기는커녕 갖고 있던 소유마저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다 나일 강의 비옥한 삼각주로 고대의 식량창고라 할 수 있는 애굽에 잠시 거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너무 예쁜 아내 사라였습니다. 고대에는 힘 센 자들이 남의 아내가 탐나면 남편을 죽이고 탈취하는 경우가 예사였고 가인의 후에 라멕이 그 시조였습니다.(창 4:19-24) 아브람은 애굽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선 치사하게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했고 실제로 그 계략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도착해서까지 여호와가 그의 기도에 응답한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나쁜 일만 연속되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실망스럽게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이 행한 최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최고로 잘 봐주어야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당신께서 그렇게 이끌어오셨 으면서도 말입니다. 그가 가장 절실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기도했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계까지는 아브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명확히 계시해주셨습니다.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것과 그의 후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살펴보면 아브람은 결국에는 여러 이방족속들 앞에서 그렇게 되었고, 그의 자손도 사백 년 후에 창성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를 어김없이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럼 거꾸로 아브람이 행한 기도에 뭔가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아브람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야 했다.**

지난주에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후에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을 이끌고 있음은 물론 기도할 때에 당신께서 바로 앞에서 전부 다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선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맞춰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약속이 이뤄지게끔 그 땅에 머물러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고 기도한 대로 끝까지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하나님은 약속은 주셨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식과 시기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통계시가 일반적이었던 때인데도 그랬습니다. 아브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스스로 분별 판단 결정 시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주시지 않는가, 그럼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가, 자연스레 의심과 불평도 생겼을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오직 당신의 의지대로만 행하십니다. 세상만사를 당신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만의 절대적 주권과 완벽한 섭리에 따라 통치하십니다. 그런 분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분의 때와 방식으로만 성취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그런 통치에, 기도 응답을 포함하여,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재촉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뤄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런다고 해서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아브람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란을 떠날 때인 75 세에 받았습니다. 그 후 10 년 정도 기다렸어도 성취는커녕 징조도 없자 충성된 종을 후사로 세우려 했으나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남성중심의 시대였던지라 아내 사래는 단순히 아브람의 몸에서만 나면 된다고 선불리 판단했습니다.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람의 후처로 들여보내어 86 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했으나 집안에 큰 분란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긴 침묵에 들어갔다가 아브람이 99 세 되자 비로소 후손을 주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계시해주었습니다. 일 년 후인 아브람의 나이 백세에 사래에게서 약속의 씨앗인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창 17 장) 하나님의 성취 시기는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25 년 후였고, 방식은 아브람과 사래를 함께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25 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당신의 때와 방식에 따라 이런 저런 고난을 겪게 이끌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가기에 가장 합당한 방식의 연단들을 가장 합당한 때에 맞춰서 거치게 한 것입니다. 아브람 쪽에선 온갖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그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점점 올바르게 형성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 아브람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까지 미리 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고 온갖 연단이 닥쳐도 자신의 믿음은 물론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디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다 가르쳐준 후에 단 약속한 기일에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보물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지켜준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물창고의 역할을 했고 신자는 때가 되어야 작동이 되는 열쇠를 맡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아무런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성취와 기도응답의 때와 방식을 미리 가르쳐주지 않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가르쳐주면 사실은 그대로 따라갈 신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할 때에 나중에 너는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아니 그전에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기 바쁠 것이라고 가르쳐주면 절대 따라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신자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신자더러 아무리 주어진 여건과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약속과 상반되는 양상을 떨지라도 당신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 연단하면서 환난 중에도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적인 본성과 세상과 사탄의 훼방으로 종종 실망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취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 만한 믿음이 좋은 자는 거의 없으며 살펴본 대로 아브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리 넘어져도 오뎅이처럼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뜨겁게 작정 금식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되어서 매사가 술술 잘 풀리고 크게 형통했다는 간증을 접해도 박수치며 부러워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때와 방식이 자기가 바라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몰랐던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에게 후손을 준다는 약속부터 오해했는데 그 뜻은 당연히 본처인 사래와의 사이에 태어날 자식입니다. 일부다처제는 라멕이 시작한 것으로 인간 죄악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첩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을 때 사래는 폐경이 훨씬 지났을 것입니다. 그럼 비상한 때와 비상한 방식으로 주신다고 분별했어야 합니다. 물론 아브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고 그래서 십년이나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상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차츰 생각을 바꿔 먹은 것입니다. 당시는 종을 입양하는 일이 많으니까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세우려 했으나 하나님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에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의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당시에는 아무 흠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아들을 얻으려 첩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설명 드린 대로 자기 몸에서만 나면 된다고 쉽게 판단해서 애굽에서 얻은 여종 하갈을 후처로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가뜩이나 애굽에서 아내에게 지은 죄가 크니까 그녀의 권유를 거절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지 못한 아브람

아브람이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갈대아와 하란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 받은 첫째 약속부터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1-3)

이 약속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반은 약속이 이뤄진 결과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후반은 그 약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과정인데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될 시기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으나 그 방식은 이 때 이미 가르쳐주신 셈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보기에 자식은 둘째 치고 자신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고 세겜 땅은 그러기에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거기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경계 천대 멸시 즉, 저주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그 땅에서 땡땡거리며 최소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임의로 판단해 남방으로 점점 옮긴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람더러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거주지에서 높은 생활수준에서 살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했지만 다시 후손이 번창하고 이름이 창대해지니까 외적 상황에는 변화가 없이 동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적 방식과 수준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갈대아 우르나 가나안이나 우상을 숭배하기도 마찬가지였고 당시는 세상 어디에 가나 참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아브람으로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보다 그것이 이뤄지는 과정에 주목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따라가면 약속된 결과는 자연히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축복하거나 저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한데 아브람이 먼저 그들을 축복해주면 됩니다. 단 하나님의 지시대로 갈대아를 완전히 떠난 자로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여호와만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분만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자신들의 방탕하고 음란한 삶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상 신이 가짜이자 실존하지도 않는 허상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아브람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하필이면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을 주신다고 다시 강조하셨다는 점에 반드시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아브람이 복의 근원으로 이방인을 섬기며 여호와를 증거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선 당신의 약속이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는 장소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상의 도성 한 복판에 장차 창대케 된 그의 후손에 의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그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보호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신의 대적의 소굴인 상수리나무 아래로 보냈다면 당연히 최고로 강력한 권능으로 붙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람으로선 비록 그 땅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소망을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인내했어야 했습니다.

## 자기 소원과 계획을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원리를 오늘날의 신자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신약시대 성도에겐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직통으로 계시 받는 일은 당신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비상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신자가 개인적으로 소망 혹은 계획하는 일이나 현재 당면한 고난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자신의 소망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기도라 해도 때와 방식은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면 그분이 신자에게 계획하신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면 당연히 그분의 때와 방식도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내 때와 방식대로 고집하는데 마치 자동판매기에 동전만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길 바라는 식입니다. 하나님은 자동판매기이고 신자의 기도는 동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아브람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당신만의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에는 당신의 계획에 대한 계시를 점진적으로 조금씩만 밝혀주십니다. 신자도 기도를 계속하면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키워나가야만 그분의 뜻을 조금씩 더 넓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천재나 영웅이 없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실제로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 처형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지만 삼년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게 했고 처참한 실패를 거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었기에 기꺼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란 그래서 일차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그분을 천천히 알아나가는 영적인 씨름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계속 침묵 외면하는 것 같아도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했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기도자가 죽은 후에 응답되는 일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오래 지체되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이 간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는 대체로 위급한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니까 응답도 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곧바로 의심 불평부터 하기 바쁩니다. 엄밀히 따지면 급한 일은 신자가 해결해야 하고 먼 장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큰일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컨대 당장 아파트 월세를 낼 돈이 모자라면 기도하기 이전에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단순히 그런 일자리를 구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수십 년 후에 자신과 자식이 함께 하나님의 헌신된 종으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조금만 힘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무작정 떼쓰듯이 자기 사정을 쏟아놓기만 합니다. 예수 믿은 본전을 찾겠다는 뜻인지, 예수 믿어도 계속 고생만 하니까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이 바쁜 중에 이렇게 짬을 내어서 젓 먹던 힘까지 동원해 기도하는 정성을 알아달라는 것인지, 그래서 마치 외상값 청구하듯이 당연히 응답되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인지, 솔직히 분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열매인 복만 받으려들지 그분과 계속해서 오래 동안 영적인 씨름을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가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도할 때 붙드는 말씀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막 9:23)입니다. 문제는 이 구절만 따로 떼어내어서 문자적으로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왜 약속의 말씀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 주님께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고쳐주면서 당신에 대해 깨우쳐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즉,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능히 못 할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 안에는 당신이 고쳐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가능성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또 다른 말씀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고 욥의 친구 발닷이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에 대해 자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좋아져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창대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다 그대로 되려면 신자들은 전부 백만장자나 큰 권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문맥의 흐름 상 욥을 조롱하는 의미였습니다.

반면에 성령에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고전 1:26)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미련한 자 비천한 자들로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는 자나 고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를 하나님 앞에 똑같이 겸손하게 만들고 나아가 당신께서도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를 향한 첫째 뜻은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당당하고도 거룩하게 서게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축복해서 사람들 위에 신자를 높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호와가 세겜에서 아브람에게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작 신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을 위로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스승과 이별하고 이 땅에 자기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람을 상수리나무 아래 세겜 땅에 홀로 보내면서 네가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면 네 이름이 창대케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방에 주님의 대적들로 가득 찬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살았던 삶대로 따라가면서 천국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주님처럼 핍박을 당하게 되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하셨고 성령이 곧바로 오셔서 모든 신자에게 주님처럼 세상을 이길 권능을 입혀줄 것입니다.

신자는 사탄에 미혹되어 죄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가는 곳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겜 땅입니다. 신자가 서있는 곳이 바로 땅 끝이며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로 자기들이 사는 방식이 틀렸다는 인식이 들도록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내야 합니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들은 어차피 신자를 핍박하겠지만 신자 본인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최종 도착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행위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므로 신자는 그 과정을 그분의 방식대로 준행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경건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세겜 땅에 보내어진 아브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곤 혼자뿐이었으므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만 해도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지금 내가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나 주변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그들로부터도 동일한 축복을 돌려받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브람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신자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입니다.

## **(창 13:1-4) 기도내용을 계속 바꿔야 응답받는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 13:1-4)

## 너무나 치사한 아브람

아브람은 여호와께 적합한 거주지를 달라고 기도했으나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훼방이 적은 곳을 찾아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쁜 아내 사래로 인해 자신이 죽을까 염려되어서 누이라 속였고 그 계략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사래가 바로의 눈에 들어서 후궁으로 간택되었어도 아브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도리어 바로에게 보상으로 많은 가축과 노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람과 사래의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장차 약속의 씨앗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사래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놓아두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사래로 인해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집에 재앙을 내렸으니까 멀쩡하던 가족들이 때맞춰서 아무 이유 없이 즉사했거나 중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바로가 뭔가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곧바로 깨닫고 아브람을 불러서 그간의 사정을 알아보고는 없었던 일로 치고 원상복귀 시켜주었습니다. 바로 앞 12 장 후반부에 진술된 내용입니다.

고대 왕들은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출애굽 때 바로처럼 완악한 자였다면 분노에 차서 아브람을 현장에서 죽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 비교적 양심적인 바로를 예비해 놓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생각까지 주관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은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오자 여호와와 이름을 다시 불렀다고 말합니다.(4 절) 틀림없이 애굽에서 겪었던 엄청난 일로 인해 기도의 내용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기도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기도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거짓말 했던 잘못을 회개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한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회개 결단한 후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한 번 따져보십시오.



흔히 거짓말이면 내 성을 갈아치우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자존심에 금이 갈 것 같으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말이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자기를 보고 놀라지만 잠시 부끄럽게 여길 뿐 자기 유익을 챙겼으니 금방 그 잘못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지혜롭게 잘 처신했다고 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스승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나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람을 두고 비겁하다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아브람의 입장이 어떠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추적해봐야만 합니다.

## 일행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아브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사항은 애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도 사래가 아브람의 제의에 순순히 응했다는 것입니다.(창 12:11-13) 결과적으로 아내를 부잣집에 후처로 들여보내고 그 대가로 남편이 큰돈을 받아도 좋다고 서로 합의한 셈이라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문제없이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확신했기에 그렇게 했다고 단순히 해석해선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고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는 어디를 가나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기에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기는 똑같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랬다면 가나안에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아브람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인 하란에서부터 많은 장정들을 거느렸습니다.(창 12:5) 가나안은 약소한 여러 부족국가들이 서로 힘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연합전쟁에서 아브람이 맹활약한 것을 보면 그런 부족국가와는 얼마든지 힘으로 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로선 그런 아브람을 차별대우는 했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들에게 냉대 받았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간 온 가나안족속을 원수로 돌리는 어리석은 모험일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에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문에 이어서 성경은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5 절)라고 설명하는데 일행이란 항상 함께 다닌 사람들을 뜻합니다. 롯이 애굽에 같이 갔다면 나머지 장정들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로 당시로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아브람 일행이 당시로선 상당한 규모이지만 애굽 군대와 대적할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기근이 닥쳤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네게브에 계속 머무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기근으로 고생하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을 포함한 식솔들을 인솔해야 할 지도자로서 애굽에 잠시 거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미모가 뛰어난 아내인데 아무리 사래가 예뻐도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기에 누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아브람은 실제로 사래는 자기 이복누이라고 고백했습니다.(창 20:12)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창 20:13)는 실토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부부사이에 이미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아브람이 너무나 비겁하게 보여도 어쨌든 아내와 약속한대로 행한 것입니다. 당시는 남성 우위의 사회로서 아내는 남편 말에 절대 복종하는 관습이 있는데다 여성의 성적순결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브람도 오늘날의 윤리의식과는 달리 양심의 가책을 비교적 적게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상숭배의 도성 갈대아의 음란하게 타락한 죄악상이 싫어서 떠난 아브람입니다. 나아가 아들을 얻으려고 후처도 얻지 않았고 사래와 금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를 희생시키더라도 자기는 살겠다고 모략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사래의 미모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바로의 대신들이 곧바로 바로 앞에서 칭찬했습니다.(창 12:15) 고대의 왕들은 할렘에 가능한 많은 후비를 두어서 자기 위세를 자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굳이 사래와 관계를 맺을 마음이 없어도, 혹은 언제든 그럴 수 있기에 비유하자면 일종의 장식용 인형처럼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래의 오빠이자 보호자인 아브람에게 결혼 지참금조로 충분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바로에게 받은 보상은 마누라를 팔아먹은 피 묻은 돈으로 자기 죄에 대한 엄청난 형벌을 자초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스승이 메시아 하나님인 줄 확신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의로운 이유가 있어서 스승을 팔고 은 삼십 냥을 받은 유다보다 더 악한 죄였습니다. 그 재물로 식솔들은 배불리 먹을 수는 있으나 정작 아브람의 속은 쓰리다 못해 미칠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행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 마지막에야 완벽하게 응답된 기도

그가 처음 네게브에서 애굽으로 넘어올 때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애굽에서 모두가 임시로 일용노동이라도 하거나 혹은 갖고 있는 소지품과 교환해서 양식을 구하여 연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내는 나이도 많고 그동안 가나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무사하게 지켜 달라는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초행길이라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곡물은 애굽의 가장 중요한 국가재산이므로 요셉의 예에서 보듯이 바로가 직접 관리하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아브람 일행의 숫자가 많으니까 시장에서 곡식을 살 수 없고 바로의 대신들과 직접 상대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바로에게 아부하려고 사래의 미모를 전했고(창 12:15) 바로도 자기 권세 과시용으로 아브람의 누이라는 말만 믿고 할렘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아브람의 예측범위를 넘어서 엉뚱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애굽의 왕이 데려갔고 그 보상도 듬뿍 받았으니 아내는 이젠 완전히 남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상거래처럼 취소 내지 파기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무력으로 대항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런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으나 수습 불가능한 절망에 처해졌습니다. 아내 사례가 애굽 여인처럼 치장되어서 왕궁의 깊숙한 내전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 방안으로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조카는 물론 일행들을 살리려는 나름대로 선한 뜻으로 애굽에 왔는데 돌아온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난입니다.

아브람으로선 처음 얼마 동안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부터 쏟아놓았을 것입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분간 바로가 사례를 취하려 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어낼 묘책을 짜서 실행할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인도해주시고, 그 때까지 아내의 정절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바로에게 잘 보여서 나중에 사실대로 실토해 아내를 돌려받을 수 있게끔 인도해 달라는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되찾게 되면 자기 일행이 애굽 땅을 무사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갈대아를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아브람의 여정이 쉽게 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는데도 매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마지막 기도는 그 즉시로 하나님만의 완벽한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아브람으로선 때마침 바로의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바로가 그 재앙을 아브람이 믿는 신의 간섭이라고 깨달았고 또 그럼에도 전혀 반감을 갖지 않고 복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아브람의 잘못을 전혀 따지지 않고 거꾸로 화해를 먼저 제안하며 사례를 온전하게 되돌려주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준 것도 회수하지 않고 평안하게 애굽을 떠나도록 해주었습니다. 추측컨대 사례가 애굽 왕궁으로 데리고 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아브람이 망연자실해져서 기도는 물론 현실적 대책을 궁리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바로가 마음을 바뀌먹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 물 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반인도 자기 가족에게 큰 손해를 입힌 자를 복수나 피해보상 없이는 용서해주지 않는데 일국의 왕은 그 위신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가 다시 호출해서 문초했을 때 아브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바로의 자비로운 조치를 듣고는 그가 느꼈을 기쁨은 더 엄청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절로 튀어나오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 받으며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을 행합니다. 고대는 신들의 능력 대결에 따라 나라의 국력이 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의 살아있는 신은 당연히 최고 강력한 신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출애굽 때의 바로가 그 큰 재앙을 열 번이나 겪으면서도 모세와 여호와께 끈질기게 덤벼 든 까닭입니다.

그런 바로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애굽의 신이 아브람의 신에게 완전한 항복을 선언한 꼴입니다. 물론 그가 원래 인성이 온유하고 영적으로 비교적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이 그의 심중에 아브람의 신에 대한 큰 두려움과 경외감이 생기도록 역사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는 우상숭배가 최고로 번창했던 세계최강국의 심장부에서 당신만이 세상만사를 거룩하게 다스리는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당신께서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직 나라가 없고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이며 소수의 추종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아브람 부부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직 온전치 못했습니다. 신전과 신상과 경전은 물론이고 마땅한 예배 의식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는 곳마다 조각하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마음의 중심을 바치며 기도 경배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당시의 상황과 관습이 허락했어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만 살려고 한 것은 여호와의 뜻을 위반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도 전혀 묻지 않고 정반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상상도 못한 선한 결과로 뒤집어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 사고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으로 응답해주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브람의 당신에 대한 의심 불평에 대해서 지루할 정도로

침묵하다가 이번에는 단번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자기 소원이나 욕심은 구하지 않고 지혜만 구했기에 구하지 않은 큰 재물까지 주신 응답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아브람을 위한 당신만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한 내용과는 별개로 그 계획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묵묵히 작업하다가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람 쪽에서 보면 모든 행동과 말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고 기도조차 참으로 단순하고 미약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 특별히 어려운 일들만 해결해달라고 매달렸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람을 탓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자연인의 상태나 다름없이 믿음이 미숙한 그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시공간으로 제한되는 물질계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육체를 입은 한갓 피조물일 뿐입니다. 모든 사고활동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일차적 중점적으로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자가 급한 일이 생겨야 겨우 기도하는 까닭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선한 일입니다.

##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나가는 기도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고서 네게브로 돌아온 아브람이 분명하게 깨달은 영적 진리가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응답하지는 않아도 큰 맥락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가장 적합한 때에 더 좋은 방식으로 행해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아가 그 결과가 내게 유익한 방향이기도하지만 반드시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만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신다는 진리까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기도는 물론 그 다음에 행할 행동도 미리 다 아셨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쪽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오래 전부터 장기적 종합적으로 통괄해서 주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직접 상대했고 애굽 사람들을 노비로 하사받았기에 약소한 가나안 부족들로선 정말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열방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서기에 충분한 외적 조건까지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당장의 문제를 당장의 눈에 보이는 정황으로만 판단해서 자기 생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매 건당 하나님께 매달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넓게 접근 이해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뜻만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에 따라서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나가는 씨름이라는 점을 생전 처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영적으로는 너무 어리석어서 매사에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물질계에 제한된 존재인데다 자기를 앞세우는 본성이 살아있기에 자기 소원대로 보이는 대로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계획, 특별히 그 시기와 방식을 아뢰기는 하되 최소한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처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태세는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반드시 주목해야할 사항은 아브람이 애굽에서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곳이 이전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겜 땅 상수리나무가 있는 모레로 우상 신전이 있기에 싫어서 동쪽 산으로 옮겨 가버렸던 바로 그곳입니다.(창 12:6,7) 여호와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신다고 다시 상기시켜 주었던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아브람에 대한 계획은 싫어서 떠났던 바로 그곳에 그를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가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더 확실해졌습니다. 거짓말 했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애굽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맨 처음 했겠지만 새로운 내용의 기도가 덧붙여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 신전이 있어도 여호와가 주신 약속을 경시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스스로 거처를 옮긴 결정부터 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관하셔서 바로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모습을 아브람은 목격했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축복해주자 여호와도 바로에게 더 이상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란에서 불러낼 때에 주신 자기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당신께서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께서 직접 시청각교육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래서 자기가 열방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 하는 자로만 서있으면 아무리 열악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분이 보호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도 절대로 비굴하게 굴지 않고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내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당신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도록 가장 먼저 기도한 후에 또 그로 인해 자기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분의 약속에 비추어서 해석 분별 적용 실천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 전능성보다 전지성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대체로 기도가 너무 표피적 단편적 일방적입니다. 자기가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 듭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에만 관심을 둡니다. 주로 급한 일을 기도하니까 응답의 시기와 방식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가뜩이나 성격이 급한 한국 신자들에게 그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시고 신자에게 복주시길 원하시고 신자가 고난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 문제 하나 해결해주시지 않느냐, 당신의 자녀가 죽을 지경인데도 왜 외면 침묵하시느냐? 거기다 왜 또 다른 큰 고난을 보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심 불평이 앞섭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서 최단 시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것만이 기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능력을 얻어 쓰려고 최대한의 정성을 바칩니다. 금식 작정 기도는 물론 천일 새벽제단 쌓기 등을 합니다. 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사실상 관심을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부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 줄 잘 아니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에게 혹시라도 능력이 모자란다고 여겨지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곧바로 현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고난 해결에는 훨씬 빠르고 쉬운 방안입니다.

아브람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간은 부분적 미시적 제한적으로 개별 사건 중심으로만 기도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인생 전반에 적용되도록 종합적 거시적 포괄적으로 이뤄집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세겜, 모레, 남방 네게브 사막, 애굽, 바로의 왕궁 할렘까지 모든 공간에 주님이 안 계셨던 곳이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마지막으로 바로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고 나아가 다시 모레 땅으로 돌아와 여호와께 단을 쌓을 때까지 모든 시간의 주인공도 그분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절실 할 때에 부재 침묵한 것 같아도 지난 모든 일들을 당신께서 완벽하게 주관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단번에 결말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를 고의로 실컷 고생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일 뿐 아니라 아브람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서는데 가장 합당하게끔 당신의 능력을 적절이 조절 절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도 그분이 무슨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다는 전능하심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해 모든 것을 꿰뚫어보실 뿐 아니라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해놓으신 전지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에 부분적으로 계시되었고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해도 평소에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기도 내용을 바뀌어나가면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분의 뜻을 미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그분과 영적인 씨름을 평생토록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에서 세 번째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오히려 새로운 고난이 더 생길 때는 하나님께 의심 불평하기 전에 자신의 기도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져 가는 상황을 기도했던 내용과 면밀하게 비교 분별하여서 기도 내용도 그에 맞추어 자꾸 조정해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아브람을 세겔 땅 상수리나무 아래로 다시 돌아오게 했듯이 내 믿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자리에 서있는지도 심각하게 항상 검토해봐야 합니다.

### (창 13:14-18) 우상의 본거지에 살겠다는 기도를 하라

“룻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 13:14-18)

아브람은 애굽에서 바로의 후궁으로 간택된 아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아무 문제없이 돌려받았고 도리어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기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전에 비해 많이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직후 조카 롯과 헤어지는 사건에서 그 성숙된 믿음을 실현했습니다.

본문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라고 시작하듯이 아브람의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본 하나님이 우르에서 불러낼 때 주셨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아브람도 그 계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의 기도의 내용도 진일보 했을 것인데 어떻게 바뀌었을 지를 간단한 본문보다 롯과 헤어진 사건에서부터 추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서로 win-win 하는 선택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브람의 형제로 그들의 아비인 데라보다 먼저 고향 우르에서 죽었습니다.(창 11:27,28) 아브람이 우르를 떠나올 때에 롯도 함께 데려왔고 애굽까지 동행했습니다. 롯도 아브람처럼 상당한 재산을 가졌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독립적으로 관리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재산을 상속 받았을 것입니다. 또 아브람이 나중에 가나안 연합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자기 군사들에게 나눠줬듯이(창 14:24) 애굽의 바로에게서 사례로 인해 받은 가축과 노비 중 일부를 조카에게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애굽에서 더 부자가 된 탓에 한곳에서 함께 묵축하기에는 물과 초지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이 거주했다간 목동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자칫 삼촌과 조카 사이까지 나빠질 지경이라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느 곳을 차지할지였습니다. 아브람이 먼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고 제안했습니다. 롯더러 나를 떠나가라고 했지만 그곳에서 쫓아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준 것이며 자기는 남은 땅으로 가겠다는 뜻도 확실히 밝혔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던 소돔과 고모라”(창 13:10) 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흔히 롯이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최악의 땅을 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벌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반면에 아브람은 하나님만 믿고 척박한 땅을 골랐기에 나중에 창대케 되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 롯이 잘못 택했고 아브람이 의로운 선택을 했다고 쉽게 판단해선 안 됩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라고 했다고 해서 롯이 옳다구나 하고 선뜻 그곳을 택했을 리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의로운 롯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삼촌에게 다시 먼저 택하라고 양보했을 것이고 아브람이 자꾸 권하니까 마지못해 먼저 택했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다 성경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창 13:10)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롯은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최악으로 타락한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쪽을 보니 물이 넉넉해서 비옥할 것이라고 여겼고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 넘어갔다 왔으니 애굽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금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는 이유는 한 곳에 계속 동거하면 물과 초지가 모자란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지 서로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옮겨 가고 삼촌이 혼자 그곳에 남게 되면 물과 초지는 다시 넉넉해집니다. 둘 다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이 서로 win-win 하는 현명한 방책입니다. 나아가 이미 거처로 삼고 있는 익숙한 땅을 삼촌에게 양보하고 자기가 새 땅을 개척하겠다는 선한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람도 의도적으로 손해를 자초하면서까지 척박한 땅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롯이 먼저 선택하고 남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으니 어느 땅이 되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롯이 남기로 결정했으면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롯더러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땅을 차지하더라도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미리 구체적으로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직접적인 음성이나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성경 66 권이 정경으로 완비된 오늘날도 비상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성령의 미세한 내적 음성을 인지하게 해주거나 기도응답에 대한 징조나 예표를 보여주면서 성령이 간섭하여 신자로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침묵하시기에 신자 스스로 자신의 선한 소망과 계획에 따라서 최선의 결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판단으로 얻은 땅이지만 삼촌과 조카가 분쟁하지 않으려는 선한 의도이므로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판단에 따라 잠시 우거한 애굽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기가 간구한 것보다 더 선하게 결말지어주신 큰 은혜를 체험한 직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소원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미리 마련된 당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현시킨다는 진리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어느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현실적 대안보다 가장 먼저 당신을 택한 아브람의 결정에 부합하여 네가 눈을 들어서 보이고 종과 횡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진일보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트럼프처럼 부동산 재벌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께서 함께해서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그를 믿음의 조상이자 열방이 받을 복의 근원으로 세운 당신의 목적대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람 개인뿐 아니라 사탄에 미혹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세대의 죄인들을 구속하려는 계획을 그에게서부터 그를 통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 인간적 의인으로 그친 롯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정교한 기록이라 곳곳에 그분의 오묘한 은총이 풍성히 숨겨져 있습니다. 범사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일들을 성령의 영감으로 저작케

했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저작 당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격변한 오늘 날에도 똑같이 놀라운 은혜와 절대적 진리로 다가옵니다.

이 사건에서 크게 두 말씀이 그러한데 우선 롯이 자기가 택한 소돔 땅을 애굽과 비교했다는 구절입니다.(창 13:10) 롯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함께 건너가서 그곳의 지리, 기후, 문물, 종교 등을 똑같이 보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도 아브람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 경험을 삶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두 사람은 큰 차이를 드러내보였습니다.

먼저 롯은 소돔 땅을 외적조건으로만 애굽과 비교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축하기 좋은 땅을 고르려는 목적의 합리적인 결정이자 삼촌을 배려한 측면마저 있었기에 절대 잘못되었다고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인생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관해서 아브람처럼 깊이 숙고하고 기도해본 적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가 소돔 땅을 선택한 후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창 13:13)고 말합니다. 비록 그가 소돔에 가본 적은 없어도 이미 소돔의 타락상에 관해선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파다했고 롯도 들었을 것이라는 힌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택한 평지 성읍에 거하다가 점점 장막을 옮겨서 결국에는 소돔에 정착해버렸습니다.(12 절) 아마도 롯은 처음부터 들판에 장막을 치고 목축을 하는 것보다 생활여건이 편리한 성읍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화려한 도시문명을 부러워했고 땅을 고를 때에 그런 점도 감안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롯은 인생의 목적을 현실적인 풍요와 안일에 두었고 모든 사고와 행동도 그에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기적도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간접으로 전해 들었던 터라 크게 실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큰 복도 주신다고만 여겼을 것입니다.

## 아브람이 뒤늦게 깨달은 사실

반면에 아브람이 애굽에서 깨달은 여호와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실적 대책이라곤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자기 전부를 걸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거의 80 이 되도록 함께 살아온 조강지처가 남의 후처가 되어버렸고 그 대가로 큰 재물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윤리의식이 지금보다 열등했어도 아내와 그런 식으로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폭탄을 들고 가서 왕궁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든지 바로의 왕자를 납치해서 교환하자고 인질극이라도 벌여야 할 판입니다.

당시로선 아브람만한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람을 따라 나왔는데 단순히 돈을 준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 할 만큼 그를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 감을 구하러 갈 때 주인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아브람의 종들이 가나안의 연합전쟁에 목숨 걸고 함께 참전하는 것을 보면 아브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넘어간 것도 그 일행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무조건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애굽에선 바로가 곡물을 직접 관리하는 줄 몰랐을 뿐입니다. 대신들이 아부하려고 바로에게 사래의 미모를 칭찬했고 바로도 할렘에 자기 위세를 과시하려고 사래를 데려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 의인이 최선의 결정을 내렸어도 여전히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완벽한 방식으로 죄 많은 인간들이 형클어트린 모든 것을 더 선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아브람의 거짓말을 용인해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불러내면서 맺은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아브람에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주실 줄 알았다면 바로가 사래를 취할 때부터 자기 생명이 위험해질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내라고 솔직히 실토했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를 만나보니 상당히 양심적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테니까 더더욱 후회되었을 것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 있어서 함부로 사악한 짓은 범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렘에 둘 목적만으로 취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보상을 한 것을 보면 아브람을 죽여가면서 빼앗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가 완악한 자였다고 해도 성령님이 바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심어주었거나, 최악의 경우 자기를 죽이려 들어도 하나님은 곧바로 바로에게 벌을 내리며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애굽에서 동일한 사건을 겪고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차원이 서로 달랐고 그 후의 반응도 서로 달라졌습니다. 롯은 인간적 윤리 기준에 따라 현실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 결정 시행했기에 인간 사회의 의인으로 그쳤습니다. 삼촌으로부터도 단순히 식솔들을 살리려고 애굽으로 건너갔고 또 그곳에서 얻은 재물을 나눠주는 의로운 모습만 배웠지 그가 겪었을 영적인 갈등과 믿음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사건이 선하게 해결되자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광대하신 권능을 제대로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 판단 결정 시행하면서 전적으로 그분께만 의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는 제 삼자로서 곁에서 고난을 지켜보기만 한 사람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직접 빠져본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이 아브람처럼 자신의 판단 미스를 비롯한 욕심과 죄악 때문이지만, 반드시 당신만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씨름한 만큼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또 그만큼 더 당신의 뜻에 더 헌신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은 신자의 그런 수고와 희생에 반드시 선한 보상을 하시며 본인도 성장하도록 해주십니다.

## 사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아브람

두 번째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말씀은 본문 18 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람 일행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도착한 세겜의 모레처럼(창 12:6) 상수리 수풀이 있는 마므레에서 단을 쌓고 거주했습니다.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는 대체로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처음 모레에 왔을 때는 그곳사람들의 냉대는 물론 우상 신전이 있는 것이 싫어서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때까지는 롯처럼 그곳이 살아가는데 편리한지 생업을 더 풍부하게 키울 수 있는지만 따졌습니다. 눈앞의 여건과 당면한 문제만 보고선 흡족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인지 물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선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으로 기꺼이 장막을 옮겨서 거주했습니다.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받았는데도 들판에 장막을 치거나 우상 신전이 없는 곳으로 옮기지 않았고 아예 우상의 본거지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우상의 신전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의 살아있는 신인 바로와도 맞상대를 해봤고 여호와가 그를 얼마나 무력하게 항복시키는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약속한 부족국가의 우상 신들이야 신경 쓸 만한 대상이 전혀 안 된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눈으로 보이고 종과 횡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순간 이전에 모레에서 여호와가 재확인해준 약속을 자기 임의로 무시했던 잘못이 새삼 떠올랐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모레에 이르러 다시 단을 쌓을 때에(창 13:4) 이미 그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회개로 그치지 않고 자기를 열방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행동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방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경기록에 없지만 롯과 목초지를 나누며 헤어질 때에도 아브람은 분명 속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어느 곳으로 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해주실 것을 전혀 의심치 않지만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롯이 더 좋은 땅을 택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도 굳건한 믿음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람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세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조금씩 더 넓어졌고 그에 따라 기도하는 내용은 물론 하나님께 반응 내지 순종하는 모습 또한 더 성숙해졌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단계에선 하나님이나 세상 앞에 배짱이 아주 든든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체험했던 그분의 광대하신 섭리에 맞추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의탁할 만큼 믿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요컨대 그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절대적으로 자기편이라는 사실에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종종 믿음에 실패해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 바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도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는 정도는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대신 아비 노릇을 해준 삼촌으로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일 수 있는지 깨우쳐주는 그분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오묘하고도 풍성히 계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며 진지하게 묵상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되 아브람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비록 시행착오와 실패를 많이 겪더라도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야 합니다.

## 기도의 네 번째 핵심

살펴본 대로 아브람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본문기사에서 기도의 네 번째 핵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맡기면서 그분의 뜻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구원해주신 후에 분홍 카펫이 깔린 길을 거쳐 유토피아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해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난이 겹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여전히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남겨둔 채 구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신자를 그대로 두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증명하려면 그분이 역사하도록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당신을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살아가는 장소는 여전히 이방 우상의 도성이고 생업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에게 변한 것은 하나님을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 두게 된 가치관과 인생관뿐이었습니다. 신자에겐 더 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첫째 과제가 아닙니다. 그분께 받은 세상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소명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하고 기도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간혹 신자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악한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아야 한다고 믿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 찬양 말씀에 헌신하는 수도원의 사제처럼 살아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만 앎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아브람이 어디든 갈 수 있는데도 상수리나무 수풀로 갔지 않습니까?

순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적합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단순한 판단에 따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로 이민가려고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단인 몰몬교의 본산지에 왜 가느냐고 말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악한 영향을 받을까 염려해주는 선한 의도는 고맙지만 이미 그런데 좌우될 정도는 지났으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로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한인 물몬교회의 교인 명부를 입수해서 그들에게 물몬교의 실상을 고발하는 소책자를 발송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서 중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말씀 사역자라는 너무나 귀한 직분을 맡기려는 이전부터 마련한 당신만의 계획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착착 진행시켜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람과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단의 본거지에서 제 믿음은 물론 삶에 적용과 실천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전 5:10) 악한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해야 하되 헬라인에게 헬라인의 방식으로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서 어떻게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권면했습니다.(고전 9:19-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살전 5:22)는 말씀도 멀리하라가 아니고 버리라고 했으니 외부보다는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밖 죄인들과는 교제하되 교회 안의 죄를 범한 성도들은 엄격하게 치리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최근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다고 아예 집에서 혼자 예배 보는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로 인해 받은 상처와 영적 갈등이 매우 힘들었을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라도 멀리하겠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 본인에게만 좋을 뿐 하나님에겐 전혀 좋은 일이 아니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고립되어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가르친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이란 당연히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를 사랑하면 하늘에서 아무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골에 백로는 가지 않겠다는 속담처럼 혼자만 거룩해지겠다는 것은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을 망각하고 남들을 더 추하게 여기는 큰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야단친 사람들이 종교적 경건으로 위장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교회가 시끄러우면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빨리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무엇이 잘못된 줄 판단할 정도라면 이미 믿음이 상당한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교회에 계속 남아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분쟁이나 권력 다툼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방과 음해를 받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왕에 혼자서 거룩하게 지내려면 교회 안에서 그러는 것이 서로 간에 더 유익할 것 아닙니까?

아브람은 처음에는 자기에겐 적합한 주거지를 주지 않는다고 의심 불평하면서 어서 빨리 그런 곳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사방이 완전히 막힌 환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되는 체험을 하고선 오히려 우상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여호와 복의 근원으로 사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도 분명히 주님께 자기 전부를 맡기며 그 소명에 온전히 순종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원 내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 죄악의 한 복판으로 기꺼이 뛰어 들어가 있습니까?

## (창 14:13-16) 기도응답 잘 받는 최선의 방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창 14:13-16)

##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성경은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진리와 그것을 계시해주는 중요사건 위주로 기록되었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의 주제와 저자의 의도에 비추어 행간의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거나 단을 쌓았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문맥상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브람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가나안 연합전쟁에 참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 동참한 군사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출전하기 전부터 끝까지 전쟁 승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기에 평소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걱정하고 옹드려도 5 분도 채 기도할 수 없기에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실토했습니다. 기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는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무엇이든, 심지어 의심과 불평도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능숙하게 규칙적으로 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쌓여야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잘하게 되는 법입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아내가 바로의 후궁이 되는 비참한 상황에 빠졌으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오래 전부터 세우신 계획과 자기와 맺은 언약이 실현되는 모습으로 자기 기도예 응답해주었습니다. 애굽에 넘어오기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생각과는 사태가 반대로 전개되니까 하나님이 외면 침묵하는가보다 여겼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어떤 힘든 고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더 선한 결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철두철미 확인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선 무슨 일에서든 더더욱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자를 향한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살전 5:17) 수도원 사제처럼 하루 종일 종교적 경건에 잠기거나, 자기 소원대로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범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에 기도로 분별하여 자기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죄로 타락한 세상과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쉬지 않고 신자를 교묘하고도 끈질기게 시험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불신세상으로부터 비방 멸시 핍박을 겪게 마련인데 자기 믿음과 능력만으로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더불어 살아가야 할 현실난관들을 담대히 극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만 해도 팬데믹으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고난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위선적 이기적이고 그 생각은 완악한 분노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맨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야하니까 기도할 일이 더 많습니다.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시간 내어 정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는 없으나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 판단 결정 시행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후에 신자더러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명했습니다.(롬 12:1) 현실의 일상적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생명을 이어가려면 숨을 멈출 수 없듯이 영적생명을 활기차고 경건하게 유지하려면 말씀과 함께 기도가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 가나안 전쟁에 휘말린 아브람

아브람이 평소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증거가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13 절)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며 죄로

타락한 백성들이 그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특별히 우상 신당이 있는 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족속에도 소속되지 않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고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전혀 끼치지 않고 특별히 윤리적 잘못을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들 중 가난한 자들에게 종종 구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현실 형통과 안락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군사들까지 거느린 아브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우상의 본거지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이 매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람이 하란을 떠난 지 약 9년 뒤 그의 나이 84세 때에 가나안 북부의 강대국 4나라와 사해 인근의 약소국 5나라의 연합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약소국들이 12년간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십삼 년째에 배반했습니다.(창 14:4) 격분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주변 3개국과 동맹을 맺어 배역한 5개국을 응징하려 한 것이라 처음부터 소돔 동맹군에게 승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박해를 당하는 약소국들의 독립 투쟁이라는 의로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역사에 따르면 홍해의 아카바 만을 통한 광산물 교역로를 확보하려는 이권 다툼이 주목적이었습니다. 피지배국이라 해서 지배국보다 도덕적으로 의로웠던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더 철저히 부패 타락했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유흥불 심판으로 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아브람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소돔에 거주했던 조카 롯이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롯은 사형 아니면 노예가 되어야 하고 그 아내와 두 딸도 전승국 남자들이 차지하거나 노예나 창녀로 팔릴 것입니다.

아브람으로선 조카와 그 가족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기른 군사 318 명 외에 그와 동맹한 마르레, 에스골, 아넬이 아브람과 함께 출발했습니다.(창 14:13,24) 엘람 왕 연합군에 정식으로 맞설 만한 군사력이 안 되므로 야간에 전격적으로 기습하여 롯을 비롯해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다시 찾았습니다. 기습작전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지혜에 따랐을 것입니다.

## 하나님 대신에 가족이 우선인가?

문제는 조카 롯을 구원하려는 선한 목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소돔에게 유익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해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창 13:13) “멸하시기 전”(10 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람으로선 전혀 알 수 없었고 한참 후 천사들이 찾아와 통보해 줄 때(창 18,19 장)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므로 누가 선하고 악한지 구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로 아브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특정한 불신자 그룹이나 개인을 정죄 응징하려해선 안 됩니다.

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알게 해줄 책임이 막중하지만 육체적 죽음에서 구해주는 것은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 있어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그분께 받은 육신적 생명입니다. 당장 가족의 생명이 위급한데도 당신의 일에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작금의 코비나 사태도 교회와 신자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무엇보다 다른 이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람이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도망한 자가 아브람에게 롯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러 들렀다는 것입니다. 롯에게서 부탁을 받아 그랬겠지만 아브람이 인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소돔 백성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려는 목적 또한 컸을 것입니다.

결국 소돔을 비롯한 5 개국 동맹이 무참히 패배한 4 개 강대국 연합에게 나라도 없이 자기들 속에 우거하는 아브람 군대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아브람의 이름에 가나안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높은 권능이 붙었습니다. 반대급부로 그에게 패한 강대국들에겐 원수가 되어서 언제 응징을 당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아브람에게 복수하러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훈련시키며 빈틈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꿔 말해 아브람이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상 기도한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집안의 종들은 물론 이웃 주민들도 이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아브람의 군대가 318 명이면 그들 가족까지 합치면 약 이천 명이 되는데 그들도 가장이 전쟁에 참가해도 좋다고 허락해준 것입니다. 평소에 아브람이 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망을 얻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아가 그들 모두가 아브람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는 아브람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아브람이 목사로 있는 여호와 공동체의 승리였습니다. 마땅한 회당, 성경, 예배 의식이 없었으니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 왕들에 대해 달라진 아브람의 반응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더러 진리를 몰라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라고 가르쳤습니다.(마 5:13-16) 아브람은 우선 자기 공동체 내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이어지는 설명(17-24 절)에 따르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두 왕들 앞에서도 실천했습니다.

인간사회 모든 분쟁의 궁극적 원인이 그러하듯이 최초의 세계대전도 오직 돈을 누가 더 차지하느냐의 다툼이었습니다. 아홉 개 나라의 백성들이 돈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람의 입장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객관적으로 승산이 희박한 싸움인데도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브람이 조카를 구하러 참전했지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 17:47)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람도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힘도 엘람 왕 군대에겐 인간의 칼과 창이었고 아브람에겐 여호와와 의로운 개입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용사 300 명이 미디안의 13 만 5 천 명(삿 8:10)에게 대승했듯이 가나안 강대국 연합이 아무리 강력해도 여호와와 정예부대인 아브람이 승리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놓았습니다.

아브람은 이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뤄주신 것이라고 또 다시 절감했을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해선 본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히브리서 5-7 장의 설명대로 예수님을 예표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에게 감사의 고백으로 십일조를 바친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본 다른 이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 왕을 대하는 아브람의 반응은 영 탄판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창 14:11,12) 야간 기습작전을 성공하고 나중에 네 강대국들과 원수지치 않으려면 비밀리에 롯만 살짝 구출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소돔 백성들이 처형당하고 노예로 혹사당하게 버려둘 수는 없어서 전부 구출해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먼저 전쟁을 치르느라 수고했으니까 소돔 사람들만 돌려주고 재물은 다 가지라고 제안했으나 아브람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창 14:23,24)고 대답했습니다.

먼저 아브람은 비록 자기 힘으로 다시 찾았으나 모든 것이 원래 소돔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이 싸움을 치르느라 허기져서 이미 먹은 것만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오직 돈을 목표로 영토와 백성과 재물을 늘리려는 세상 사람들의 전쟁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군사들도 자기를 보고 따라온 것이지 재물을 얻으려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군사들이 그 조치에 전혀 반대가 없었으니 아브람의 평소 인격이 또 다시 드러납니다.

대신에 자기 부하가 아닌데도 함께 따라와 준 가나안 주민 셋의 몫은 챙겨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람의 그 의로운 행실을 보고 받은 감동은 대단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전쟁의 경과와 아브람이 소돔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세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가 그를 불러낼 때부터 주신 약속대로 아브람의 이름은 날로 창대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브람의 삶이 자기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의로울 것이므로 가나안 족속들로선 그가 믿는 신도 우리들 신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겐 비록 왜곡되었어도 창조주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에 대한 양심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교를 버리고 당장 개종하지는 않겠지만 여호와와 그의 종 아브람을 절대로 경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온 것에 비해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아브람에게 빼앗길까봐 혈레벌떡 찾아와선 나름대로 자기 백성들 보라고 큰 선심을 쓰는 척한 것입니다.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나중에 네가 나로 치부하게 하였다고 생색을 내지

못하게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딱 부러지게 잘랐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또 다시 아브람으로 모든 전후사정을 정확히 분별하게끔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소돔 왕에게 보인 아브람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애굽에선 바로에게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이고 비굴하게도 큰 재물을 받았습니다. 고대전쟁에선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관례였고 소돔 왕이 백성들을 구해준 대가로 재물을 다 가지라는 제안을 했는데도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북부 강대국들이 복수할 때에 소돔 왕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브람이 꾸중이나 다름없는 말로 대꾸했으니 소돔 왕은 왕으로서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반감만 생겼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종으로서 아무리 세상 최고 권력자들 앞이라고 해도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모든 나라 왕들에게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했습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께 받은 엄청난 은혜의 체험이 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그의 믿음도 조금 더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신자가 아무리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함께 이겨내게 되면 믿음도 그 고난의 크기만큼 커지는 법입니다.

##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아브람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아브람은 기도한대로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모습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로는 자기 인생을 여호와께 완전히 의탁하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라는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 전부를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고 선언한 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골리앗을 향해 돌진해 갔습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었지만 여호와께 자기 전부를 맡겼습니다. 할레 없는 백성이 할레 있는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여호와를 맞서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만과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신자들이 기도와 삶을 따로 분리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내용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심지어 되어져 가는 상황을 기도했던 내용과 비추어서 분별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습관으로 신앙을 가장 자라게 하지 않는 요소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절차라고 너무나 초보적으로 이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가만히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말기 암에 걸려 병원에서도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가 아닌 이상 그래선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도하는 제목은 현재 삶에서 당면한 문제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 안에 살아야 하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과 또 현실 삶을 개선시키고 싶은 자신의 계획과 소망부터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그렇게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더러 롯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눈에 보이지 않게 탈출시켰을까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대 교회 때에 두 번이나 바로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주셨습니다.(행 5:17-26, 12 장) 또 바울일행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하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행 16:19-34) 두 경우 다 현실적 방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베드로와 바울은 기독교를 설립하는 책임을 진 두 사도였기 때문이고 또 본인들도 그런 기적의 은혜를 입자마자 다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하나님에게 그런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선진들의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하며 솔직히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 면전에 서기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적을 기대하듯이 기도하고 손을 놓고 있다면 평소의 우리 위치에 비추어서 마찬가지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약해질 때에 온전해진다고 고백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발휘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양떼들을 돌보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고질병만 고쳐지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는데 그 자체가 큰 교만이였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자기가 약한데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해졌다는 말은 실제로 바울이 자신은 연약한데 과연 이 일이 이뤄질까 염려했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뤄주신 체험을 많이 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우리로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무엇이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나 계획을 두고 기도한 것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대로만 되어야겠다고 고집하니까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 결실 없는 짝사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한 후에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끝까지 내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그분이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기도한 대로 열심히 실천을 해보야 그분의 응답과 비교 대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또 당연히 그분이 응답해나가는 방식에 따라 내 생각과 실천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수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람의 기도와 삶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목숨 걸고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라거나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든 도움을 청하러 오게끔, 아니 상담이라도 요청하게, 아니 기도라도 해주길 바라게, 아니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을 온전히 신뢰라도 하게끔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믿음은 물론 기도에도 혹시 잘못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본인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께 기도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웃들도 나를 신뢰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자기 뜻을 아뢴 후에 하나님이 스펙터클하게 이뤄줄 역사를 여유 있게 기다리는 영적의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충성스런 동역자로서 적극적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드리며 실제로 그분 인도대로 실천에 옮기는 행동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하면서 기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 (창 18:16-25) 기도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바꾸어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창 18:20-25)

## 기도에 관한 성경최초의 가르침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의 본문은 지금껏 다섯 번 살펴본 말씀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진술이 있거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본문들을 알아봤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무슨 내용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았어도 문맥상에 드러난 행간의 의미를 통해 기도를 추적해본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시작해 18 장 마지막 33 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된 계기와 그 내용과 결말까지 자세히 설명된 것으로는 성경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교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당연히 기도의 조상도 되므로 신자라면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나눈 대화였지 그가 제사를 드리는 중에 혹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그에게 통보하자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없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따지듯이 간청했고 하나님은 그의 항의 아닌 항의를 수용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고 하나님도 곧바로 대답해주셨기에 기도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기도에 대해 이만큼 풍성한 내용을 가르치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지금껏 너무나 피상적으로 가르쳐져 왔지 정작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거의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문제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해주신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끈질긴 기도로 응답받았다는 것도 사실상 틀린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종일관 간구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먼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의인 50 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24 절) 하나님은 곧바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소돔에 그만한 의인이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숫자를 줄여서 마지막에는 열 명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했습니다.(32 절) 그런데 소돔은 결국 멸망당했으니까 그의 간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읍을 합쳐도 의인이 열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열 명은 간단히 말해 한 가구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마지막에 열 명까지 낮춘 것은 분명히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야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럼 롯의 가정도 의인의 가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의 아내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 롯은 과연 의인이었는가?

롯과 두 딸이 살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가 어쨌든 응답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열 명에서 더 이상 숫자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정도의 의인의 가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가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의인의 숫자를 알아맞히는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롯의 처와 두 딸과 약혼한 사위만 합쳐도 여섯 명인데 조카만 염려해서 의인 한 명이라도 있다면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수는 없습니다.

열 명까지 숫자를 낮춘 후에 그는 여호와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전제했습니다. 처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만 한다고(25 절) 따지듯이 요구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바꾼 잘못을 너그러이 이해해달라는 뜻도 있지만 겨우 열 명의 의인으로 심판을 중지해달라는 것이 너무 염치가 없는 부끄러운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용서해주겠다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바꿔 말해 아브라함이 롯만 의인이라고 여기고 한 명이라도 있다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긍휼에 비해서 인간은 도무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로 끝나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로 롯이라도 구원 받았다는 해석이 옳으려면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 롯은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기도와는 무관한 문제이므로 자세히 따져볼 여유는 없고 성경이 롯에 관해 어떻게 말하는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벧후 2:7)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문맥상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구원했다는 단어 대신에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건진다는 헬라 원어 ‘흐뤼오마이’는 영어로 ‘delivered’라고 번역되었듯이 단순히 ‘끌어내다’, ‘구출하다’의 의미입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옆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창 19:29)고 마찬가지로 구원과 무관하게 내보냈다고 말합니다. ‘내보내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흥미롭게도 소돔을 옆었다는 동사와 같은 의미인데 영어로도 overthrow 라는 같은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성안에서 평안했던 롯의 인생을 밖으로 내몰아서 완전히 뒤엎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산속 깊이 피신해서 생을 마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과는 무관하게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롯을 살려준 이유를 단순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가 조카와 그 가정을 심히 안타까이 여기는 심정을 아시고 그들의 목숨만 건져주신 것입니다.

## 출발부터 차원이 다른 기도

이를 두고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들어주신다고 간단히 이해하고 치울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이 응답되지도 않은 기도를 가장 먼저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로부터 반드시 받고 싶고 받아야만 하는 기도가 지금껏 대부분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선 기도 제목부터 비록 믿음이 많이 성숙되었어도 아브라함이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깨달을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지극히 타락했다는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유향불로 진멸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상수리나무 수풀에 계속 거하고 있었는데(창 18:1) 우상의 중심지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도 정신없어서 기도도 당장 당면한 문제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평생을 두고 아브라함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 기도할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소망하고 계획하거나 지금 겪고 있는 괴로운 일만 주로 기도하는 우리와는 그 출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17 절)하면서 당신의 계획을 직통으로 계시해주었고 아브라함도 그에 맞추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신구약성경이 완비된 신약시대에는 직통 계시가 아주 드물기에 아무리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하나님의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인 셈입니다. 때로는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일이나 사람을 위해서 불현 듯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령이 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능숙하지 못한 자라면 최소한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돔의 심판계획은 이미 확정되었고 인간이 개입하여 간섭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종이라도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기도해도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소돔을 심판해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20 절)라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의 죄악상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고서야 심판 계획을 세웠을 리는 없고 소돔의 타락상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의 죄인들과 그 타락상을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의 원어가 핍박을 받아서 나오는 고통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 주민들이 자기들 왕이나 동족에게 핍박받아서 하나님께 아우성쳤다면 그들부터 의인이 되므로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들로 인해서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 열 명도 없어서 심판했으니까 롯을 포함해 아무도 아우성을 지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롯이 소돔 백성의 죄악에 참여까지는 모르지만 수수방관한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롯이 정말로 의인이었고 또 그래서 소돔 성에서 그 죄악상을 붙들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소돔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서 고통의 신음 소리를 낸 것입니다.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유독 그들만 심판 받았다면 음란하게 타락한 위에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죄악은 항상 사람을 파괴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성향이 있기에 가만두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됩니다.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소돔처럼 되기 전에 중심환부를 하나님이 도려내려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방도는 인간 신자에게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카 롯의 생사가 걸려있기에 아브라함은 손을 놓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에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무리 소돔이 죄로 타락했어도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소돔 왕은 가나안 연합전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에게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먼저 영악하게 선심 공세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전후 사정을 잘 분별하고서 그들과 한통속이 되기 싫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만약 그 때 소돔 왕의 제안대로 재물을 다 차지했더라면 지금 하나님께 이런 담대한 간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어야 그분께 무엇이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미리부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롯은 소돔에서 맨몸만 구출 받아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삼촌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직접 목격한 그로선 아마도 소돔에서 지은 죄가 많았던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두 딸과 함께 산속으로 피신해버렸습니다. 두 딸이 자식을 갖고 싶어도 남자가 없어서 아비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에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롯의 자의는 아니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원수 대적이 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롯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는 의인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가 소돔 성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동성애를 시도하려는 사악한 움직임을 막으려고 노력한 점을 가상히 여기고 그에게 도피 방안을 미리 알려주어 생명이라도 건지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모든 사태는 똑같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는 소돔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응답도 되지 않을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헛수고만 실컷 시키며 죄송하지만 갖고 놀았던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롯을 위해선 당연히 그래야하지만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소돔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려는 것이며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아브라함이 그 동안에 소돔의 타락상은 물론 조카 롯의 영적상태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무관심했었던 잘못을 깨우쳐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에 지금 그에 합당한 기도의 조상도 되게끔 교육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열방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서야하는 종이라면 평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려는 뜻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중에 율법에 문자적으로 규정될 고엘 제도의 조상으로도 세우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장 가깝고 유일한 혈육입니다. 롯의 손해나 고난을 대신해서 최소한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고엘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현실적 손해만 책임져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롯에게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는 고엘인 보아스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성숙되었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초지와 우물이 부족해 조카 일행과 헤어지고난 후에는 롯의 삶과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시로 롯을 찾아가 소돔에서 빠져 나오라고 권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아주 강직하고 군대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소돔 왕이 롯이 자기 조카라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로선 소돔의 실상에 대해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 롯도 잘 지내겠거니 여기고 치유했을 것입니다.

그가 의인의 숫자를 처음에는 호기롭게 50 명이라고 했다가 45 명, 40 명, 30 명, 20 명으로 낮추다가 마지막에는 10 명까지 내려간 것은 소돔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 50 명만 있어도 너무 쉽게 용서해주신다고 하니까 잘못 추측했나보다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45 명으로 줄여도 여전히 곧바로 용서해준다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수시로 롯을 찾아가 소돔의 실상을 파악했다면 처음부터 열 명으로 제안했다가 점차 한두 명으로 줄여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준 뜻을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 열방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세워졌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조금이라도 안타까이 여긴 적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는가? 네 조카 롯을 위해서 삼촌 즉, 고엘로서 책임을 다했는가? 그에게 내가 너와 맺은 언약에 대해 가르치고 믿음을 키워주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는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은 물론 소돔과의 연합 전쟁에서 체험한 은혜를 간증이라도 했는가? 아무리 네 일행들을 먹여 살리기에 바빠도 최소한 조카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었어야 하지 않는가?”

옆드려 절 받기라는 속담처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서 기도제목부터 주고 매우 뒤늦은 감이 있지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고 여러 번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도 없이 소돔으로 바로 찾아가 심판했다면 비록 똑같은 결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됩니까? 조카가 아내도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두 딸과 함께 유랑하게 될 때까지 삼촌으로서 전혀 몰랐고 나아가 도움을 준 일이 전혀 없으며, 기도마저 하지 않았다는 후회가 평생토록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라도 기도하게 해서 그에게 평생 따라다닐 롯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감을 없애 주려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세밀한 배려와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애굽에서도 아내 사래의 정결을 보존하며 더 선하게 해결해주심으로써 지금보다 더 심했을 죄책감을 없애주셨듯이 말입니다.

## 기도의 교과서가 정말로 가르치려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기도인지라 지금껏 다섯 번에 걸쳐 살펴본 기도의 핵심이 다 적용되어졌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개인적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했고, 그분의 계획을 붙들고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했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서 이뤄진 기도지만 여섯 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내용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의 죄도 회개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주변 사람을 더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어야겠다는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32 절)는 하나님의 뜻만 확인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롯과 가족까지 합쳐서 과연 의인이 열 명이 될지 모르지만 기도의 결과는 그의 손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 응답이 심판으로 끝나고 롯 가족이 포함되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지금껏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 단을 쌓을 때마다 드렸던 모든 기도를 다시 복습하게 하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고 나아가 여러 번 수정하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의 기도의 내용과 자세는 다시 또 크게 업그레이드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롯과 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어느 땅이든 다 준다고 하셨는데도 적극적으로 우상의 도성을 택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듯이 앞으로도 기도한 대로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교과서에서 오늘날의 신자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으며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악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만약 롯이 없었다면 요나처럼 화를 내고 도망갔을지 모르는 그런 기도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소망을 크게 잡아서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또는 사업실패나 중병이 걸려도 천일 새벽 제단을 쌓는 등 최고 열정적인 믿음을 보이면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오늘날의 크게 번창하는 가르침과 연결될만한 고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시켰고 아브라함도 열심히 끈질기게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정작 그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긍정적인 결말을 맺게 해준 것도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진멸되었고 롯과 그 가족은 너무나 부끄러운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높아졌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설명 드린 대로 분명하고 간단했습니다. 아브라함더러 그 동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잘못을 꾸짖고 정작 기도해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렇게 꾸준히 기도했다면 소돔의 멸망은 몰라도 롯의 믿음과 삶이 바뀌고 최소한 그 말년의 인생이 그런 처참한 실패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신자로 부름 받은 뜻은?

신자는 열방 앞에 복의 근원으로 불려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주고 다른 이가 그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창 12:3) 아브라함에게 직접 복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부터 먼저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해서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든지 최소한 평소에 구제 선행을 베풀어야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도 간단한 이치입니다. 아브라함더러 처음에 우르에서 불려 나올 때에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려면 본문 같은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당장 이런 기도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거나 항상 이런 기도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살펴본 대로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점점 변화 성숙되어졌습니다. 본문에서도 당장 조카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엉겁결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최초로 자세히 기록하게 한 이유만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있다면 복의 근원으로 불려 나온바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만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기도가 어떤 자리에까지 갔습니까? 자기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다른 이를 살려달라고 옆드렸지 않습니까?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음란하게 섬기는 용서 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바울은 완악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됨을 부인하며 오히려 신자를 핍박하여 마찬가지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성령 훼방 죄를 범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긴 해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용서받지 못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현재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종말과 방불한 까닭이 악독한 니느웨 같은 세상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스스로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악독해지는 것은 신자가 소금과 빛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전에 기도부터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하실 일을 알려주면서 그 거룩한 역사에 동역자로 초대해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택했는데 지금 그 일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19 절)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일은 당신의 동역자로 불렸으니까 소돔의 심판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며 또 그 통보를 받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일은 당신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악한 도성이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요나처럼 왜 그런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느냐고 하나님께 대들고 도망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불쌍한 이웃을 위한 기도라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남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이라도 자주 받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 이런 기도를 할 관심도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까? 물론 지금의 세태를 보면 누구나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신자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도달해야 할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 (창 18:23-26) 주기도문의 구약성경 버전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 18:23-26)

## 이방인과 다른 기도를 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열 명만 있다면 소돔의 멸망을 재고해달라고 기도했으나 조카 롯의 가정마저 의인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그 경위와 내용과 결말까지 자세히 기록한 이 기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사항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첫째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둘째 심지어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그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단순히 자기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 받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방안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기도에 대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내용이며 예수님도 기도의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실은 신자라면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몇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1-33)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하지만 당신의 제자들더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신자도 먹고 마실 것을 구해도 되지만 그것만 집중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구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기도하는 순서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라는 데에 초점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관해선 다 아시므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집중적 우선적으로 구하면 그런 것은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굳이 그런 문제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큰 환난이 닥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갇나온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신자에게 매우 심각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고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먼저 구하고 있지 않다면 이방인 즉, 불신자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히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거나 유보된 상태일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기도한 대로 이뤄졌다 해도 우연의 일치이거나 자신의 노력한 결과이거나 심지어 사탄이 그렇게 응답해주었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설명 드린 대로 단순히 교회생활을 성실히 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문맥상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방인과 정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인생사에 행운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신적인 존재들은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상상으로 지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 신들과 실제적인 관계가 전혀 형성될 수 없으므로 자기들 생각대로 믿고 치웁니다. 신은 반드시 자기들이 바치는 치성에 비례해 축복해주고 화액은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정해버린 후에 현실적 형통과 안락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구합니다.

신자는 그와 반대여야 하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바치는 정성과 열심에 비례해서 복과 화를 주지 않고 오직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신자의 기도는 물론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만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과 계획에 따라 당신께서 모든 인생사를 주관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의는 당신께서 통치하시는 기준과 방식으로서 불의 불법 불공평 불합리한 것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완전한 공의를 뜻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평생토록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 거하게 되고 나아가 이웃과 온 땅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분의 의로움이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아름답고도 풍성하게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과 다른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후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34 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방인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므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일상사였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은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므로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고후 12:9) 나아가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딤후 4:7,8)고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죽은 후에는 천국 면류관이 예비 되어있습니다. 바꿔 말해 어떤 현실적 문제라도 담대히 맞서지 못할 이유와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맞서 싸우는 동안에는 많이 힘들지만 영광스런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데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가난과 핍박 중에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빌립보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치레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현실적 궁핍이나 풍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체험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더러도 지금 무척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자신이 실제로 받은 은혜를 간증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신자는 그 반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가르침은 신자는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 하늘에서 이뤄진 뜻이란?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형식적 기도를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모범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므로 굳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10 절)가 모든 신자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친 것과 똑같습니다.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라고 우리말로는 과거로 표현되었으나 원어는 현재형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안에, 거하는, 가지고 있는 등의 뜻인 전치사 엔(in)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게 현재형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품고 있는 한 가지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뜻이 땅에 이뤄지도록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더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돌리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짐을 받게 되기를 영원토록 소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평생토록 당신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대로 순종하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신자가 그렇게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 이방인들로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찾지도 않고 그분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어김으로써 영적인 죽음이 모든 후손에게 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깊숙이 숨었는데도 당신께서 먼저 찾아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면서 그 죄를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선 사탄의 흥계를 깨트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 3:15)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맞추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 때가 차매 약속하신 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성자 예수님을 창조 때에 하늘에서 이뤄진 뜻을 이 땅에서 이뤄지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값을 감당할 완전한 대속 제물로 바쳐지게 해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그 때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7-19)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그를 첫째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도 하늘에서 이미 이뤄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회 즉,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 개인과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 권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한정했듯이 교회에 음부를 이길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현재형으로 영원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에 미혹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더러 바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십자가 복음이 증명되고 확장되는 차원의 기도를 하면 땅에서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본문 23 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에서 ‘나아가’의 원어는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죄인을 변호하려고 재판장이 앉은 자리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하도록 당신께서 나아오도록 이끌었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미리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기도는 주기도문의 구약버전인 셈입니다.

제사장이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대리하여 하나님께 그 용서를 탄원하는 자입니다. 소돔사람처럼 자신이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줄을 전혀 모르는 이웃의 이방인들의 죄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신자더러 제사장적 기도를 하라는 것은 사탄에 미혹되어 죄의 노예로 묶여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거꾸로 사탄이 결박되고 그에게 노예로 묶여 있던 죄인들은 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중보는 서로 대적하는 사이의 중간에서 양쪽의 화해를 성립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겨진 육체로 그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허물었습니다.(엡 2:14-16) 완전한 인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죄인을 그분과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중보는 주님이 하시고 신자는 주님께 힘입어 중보의 간청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로 끝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했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가 지금 기도드리게 불신 이웃에게 베풀어주셔서 사탄은 결박하고 이 죄인은 풀어주십시오라는 의미였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의에만 의존하여서 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를 했으니 응답해 달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아멘을 붙이는 것도 반드시 그렇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솔직히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모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만사를 선하게 통치하시고, 신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등등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어떤 제한도 없으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혹시라도 현실적 이해타산의 뜻이 없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막상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방인처럼 자신의 현실적 문제와 고난들에 우선하고 집중합니다. 현재 자기를 묶고 있는 실패 고난 실망 등 현실적 제약에서 풀어달라는 간구입니다. 과연 그것이 음부를 이기는 권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현실적 장애가 사탄에 묶인 때문이라는 증거 내지 확신이 있다면 끈질기게 심지어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해도 됩니다. 솔직히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묶고 있는 현실적 장애물만 풀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풀어야 할 대상과 묶어야 할 대상부터 정확히 구분해 기도해야 합니다. 풀어야 할 대상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불신자 이웃과 그들의 부패한 심령입니다. 신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자기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에 묶여서 이런저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묶어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사탄과 자신을 여전히 수시로 넘어뜨리는 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 6:12)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까닭입니다.

신자가 정말로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매어주고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보고 기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중보기도자의 마음은 당연히 기쁘게 받으시지만 신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했기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자신의 풀리지 않는 문제와 계속 묶여 있는 고난은 언제 해결 받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설명 드린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함께 해주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마 28:19,20) 나아가 아무런 계산 없이 이웃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면 넘치도록 더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눅 6:38)

## 수영장에 던져진 신자

미국 부모들은 자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가르치는데 아예 아기를 수영장에다 던져버리는 식입니다. 어린이는 어떤 일이 힘든 지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힘들이지 않고도 주변 움직임에 적절히 반응합니다.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장애가 되는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어린이 특유의 반사 신경입니다. 물에 던져진 아이는 의외로 아주 쉽게 스스로 물에 뜨고 앞뒤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따로 불러 나왔다는 것은 수영장에 그렇게 혼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간섭하여 심령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후로 성령님이 내주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인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 사람은 갖지 못하는 성령, 성경, 기도라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났기에 어린이가 태생적으로 수영장에서 물에 뜨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운동신경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수영장에 아기를 던진 아버지는 아이가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뜨게 되면 쉬운 평영에서 시작해 자유형, 배영, 접영 등 점점 어려운 수영기술을 가르쳐줍니다.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는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따라하며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 후로는 물놀이나 다이빙을 하면서 신나게 놀고 깊은 곳에서도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때로 너무 신나게 놀다가 물을 마시고 허우적거리더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영이 미숙한 다른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능숙해지면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자로 그런 수영안전요원이 되라고 세상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수영장에선 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므로 스스로 수영을 배울 수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흑암의 깊은 물에 빠져 갈 바를 몰라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신자가 사탄을 쫓아내고 묶인 줄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들은 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출석한지 몇 년이 지나도 수영안전 요원이 될 생각은 않고 스스로 수영할 생각조차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만 깊은 물에 빠지거나 파도가 덮칠 때마다 도와 달라(help me)는 비명만 지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룻은 물론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은 이제 곧 익사하기 직전입니다. 사탄이 줄로 묶어서 끝까지 맘껏 신나게 갖고 놀 것이며 백성들은 그것에 익숙해져서 수영을 배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불러 나왔어도 가는 곳마다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도성이었기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상 신전이 있었을 상수리나무 수풀 마므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돔의 심판계획을 통보해주기 전까지는 그도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그쳤던 것입니다. 자기 집 뒤뜰 수영장에서 자기 식구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당장 롯의 식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아도 내 코가 석자라는 핑계만 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네 조카가 소돔 백성들과 함께 익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일차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먼저 구하는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자기 식구들이 아니라 남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제사장이자 변호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섯 번이나 의인의 숫자를 낮추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신다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소돔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토론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소돔 같이 사악한 세상마저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심정을 더 깊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소명과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수영을 배워서 자기 혼자만 생존하라고 부른 것이 결코 아니라 안전요원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안전요원 자격증을 따지도 않고 따도 장롱에 묻혀두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받았는데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면목조차 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신자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나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어디가나 가나안 같은 우상의 도성입니다. 신약성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의 심판 계획을 직접 계시 받는 것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자 인생에 대해 영원토록 품고계시는 뜻은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사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모습이 되도록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진전되도록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뤄진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곧바로 쉽게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에 혼자 뜨는 법부터 배우고 단계별로 수영기술을 배우다 다른 사람 구조법까지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로를 거쳐 왔고 지금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전요원으로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안전요원이 되어도 병이 들거나 일을 많이 해서 지치거나 돌발적인 삼각파도가 덮치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요원에 의해서 구출 받을 수도 있고 힘을 얻어서 금방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매고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최초로 자세히 기록한 기도가 죄악의 도성 소돔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특별히 사탄에 묶인 데서 풀어주는 기도를 할 때에 음부를 이기는 엄청난 권세가 반드시 드러나고 이 땅과 주변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수영장에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만 하는 신자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영실력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 (창 20:1-7 & 17,18)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로 기도하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단으셨음이더라.” (창 20:1-7 & 17,18)

## 같은 사건 다른 기록?

아브라함이 여섯 번이나 소돔의 심판을 재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쪽에서 불타는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창 19:27,28) 그가 살던 마므레에서 소돔까지는 약 4-50 마일 정도 떨어졌으나 마므레는 고지에 위치했고 소돔은 들판이라 충분히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그 불에 탄 폐허를 내려다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소망과 달리 의인이라곤 한 가정도 없었으며 조카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롯만은 살려주겠다는 언질을 주지 않았고 롯도 깊은 산으로 피신해버렸으니 얼마동안은 조카가 죽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롯이 사위까지 불 정도로 나이가 들었지만 그 동안 삼촌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대신했던 아브라함으로선 평소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 계획을 미리 통보해주었기에 생전 처음 사악한 도성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제사장적인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르에서 불러낼 때에 자기와 맺은 언약에 비추어 자신이 맡은 소명도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소돔의 멸망 전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성숙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이전에 예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뤘던 치사한 잘못을 또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기원이 다른 다양한 문서를 여러 사람이 종합해서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서설이라는 신학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한번만 실수했는데 기원이 다른 두 문서가 다르게 기록했기에 성경 편집자가 두 기사를 다 포함시켰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미리 통보 받았고 그 예언대로 엄격하게 시행된 것을 똑똑히 목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저지르면 자기도 그럼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황당한 잘못을 반복하니까 누가 봐도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고 그런 주장에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문서설대로 따지자면 두 원본자료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다른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정지을 수 없으니까 둘 다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의 오랜 기록들을 고대의 전설 내지 설화라고 간주했기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것도 창세기 전반부의 모든 사건들도 역사적 진실일 뿐 아니라 너무나 정미하게 기록되었기에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도 각기 다르고 풍성합니다. 이 두 사건도 마찬가지로 당시상황, 발생경위, 진행과정은 물론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결말이 각기 다릅니다.

##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아브라함

그가 마므레에서 왜 다시 남방 네게브 땅으로 이주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철기 문명에 뛰어난 히타이트 족속이, 성경은 헷 족속이라고 칭함, 가나안을 침공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추측이 옳다면 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식솔들의 생명이 걸린 큰 위협에서 벗어나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사라로 인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군사도 있고 가나안 연합전쟁에서 승리했던 명성도 인근에 상당히 퍼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감히 사라를 뺏거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선 세계 최강국이라 아브라함도 감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우선 규모가 애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맞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전혀 항거하지 않고 순순히 사라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은 정규군대라기보다 목축을 하는 일꾼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동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려한 가나안 연합 전쟁을 빼고는 자기 쪽에서 먼저 가나안의 족속들과 다툰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이방인으로 우거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해도 아브라함은 아주 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주변상황이나 외부자극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헤쳐 나가기보다는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꾀방이 있자 거처를 점점 남방으로 옮겼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애굽에서도 순순히 당했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어도 사라에게 저지른 죄 때문이긴 하지만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지금도 헛 족속과 충돌하는 것이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음이 분명합니다. 고대에는 일국의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 신하들 앞에서 왕을 모독한 큰 죄가 되므로 현장에서 처형당하거나 아주 큰 곤욕을 치릅니다. 아무리 관습이 그랬다 해도 또 비록 사라가 실제로 그의 이복누이로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런 약조를 했었다 해도(12,13 절) 애굽에서 한 번 큰 실패를 겪었으면 다음부터는 아내라고 솔직히 밝혔어야 했습니다.

고대에는 남편 있는 여인이 혼자서 공공장소에 나다니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라가 혼자 있을 때에 아비멜렉이 접근했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살리려고 오래 전에 약속한 대로 그의 누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 쳐도 아브라함은 애굽의 기억을 되살려 뒤늦게라도 아비멜렉에게 실토한 후에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생명이 걸리는 일이 생기자 비겁하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전히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죄 많은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는 용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체험하듯이 평생토록 죄에서 완전해질 수 없으며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비로소 성화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자기 실패를 바로 잡아주셨으니 이번에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비멜렉 집안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려 주리라 믿었거나 그런 저주의 기도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다른 족속을 축복해주어야 하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그가 그렇게까지 완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으로선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족장 아브라함이 나타나자 사이좋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대에선 알다시피 왕족끼리 혼인을 해서 동맹을 맺는데 아브라함의 누이는 그의 공동체에선 공주에 해당됩니다. 이어지는 20 장 후반부 기록에 따르면 그에겐 아직 후손이 없었기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의 실패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역사상 최고의 미인을 클레오파트라를 꼽습니다. 그녀의 치마폭에 로마 황제와 장군들이 꿈쩍 없이 놀아났고 당시의 세계 역사를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중에 사라만한 미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으면 그 나이의 여자를 애굽의 바로나 아비멜렉이 후처로 삼으려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사라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겠지만 아비멜렉이 자식을 보려고 덤벼오니 동안으로 빠져도 역사상 최강이었습니다.

## 뒤치다꺼리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혼자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을 다 해결하여서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여호와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네가 사라와 관계를 맺으면 남의 아내를 취한 간음죄에 해당되니 너와 네 가문에 죽음의 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7 절)

아비멜렉으로선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로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5 절) 하나님도 너의 죄 없음을 알지만 죄를 지을까 염려해서 미리 경고한다고 대답했습니다.(6 절) 아비멜렉은 그 경고에 순종하여 곧바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애굽 바로의 두 경우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비록 바로가 여러모로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자기 권세를 과시하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사라를 할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단순히 기근을 피해 온 아주 가난한 이방인 정도로만 취급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경고를 해서 회복시키고 그의 집안에 닫혔던 태를 열어 왕자를 생산케 하는 축복까지 주었습니다. 그가 사라를 후궁으로 택한 목적이 후손을 보는 것과 아브라함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선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두 왕의 숨겨진 동기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라고”(7 절)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대할 때에 당신이 세운 특별한 종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또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되면 그의 기도 덕분인 줄 알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열방 앞에 창대케 해준다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게끔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아브라함과 사이좋게 지내려 했던 원래 의도대로 그에게 충분한 사례를 해주었습니다. 거기다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15 절)고 허락해주었는데 자기 나라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며 기도해 달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선하게 해결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예언한대로 그 집안을 위해 기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응답입니다.(17 절)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18 절)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내와 여종에게서 후손을 보려고 많이 시도했으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살펴본 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라를 후궁으로 취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왕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모래 상자 안의 개미 같은 인간

주목할 사항은 성경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아셨다고 설명하지 않고 미리 계획해 놓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한 성격이라 헛 족속을 피해서 네게브로 이주할 것과 또 애굽에서 범했던 실패를 다시 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담은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므로 사전에 계획을 짜놓은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아래의 보충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두 인간 당사자는 전적으로 자기 이성대로 판단하고 자기 의지대로 결정 시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로 당신께서 이미 세워놓은 계획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해서 당신의 뜻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주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계획은 서로 별개의 차원에서 이뤄져도 상호 어떤 모순과 충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범사에 간절히 기도하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에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지게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신자도 그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문제나 고난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권능을 구체적으로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제가 항상 드는 쉬운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상자 안에 모래를 깔고 여러 크기와 경사의 모래언덕과 온갖 바위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물이나 먹이도 적절한 곳에 나열한 후에 입구에서 출구로 가는 길을 하나만 만들어 놓았다고 칩시다.

상자 입구로 개미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개미로선 새로운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자기 판단 하에 다음 행동을 취하지만 결국은 이미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출구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개미로선 한 곳의 장애를 통과해도 다음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어디에 물과 먹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무사하게 상자를 빠져나가게 마련인데 전적으로 그 상자를 미리 그렇게 디자인해놓은 인간의 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인생 상자를 그런 식으로 미리 완벽하게 마련해놓았습니다. 아비멜렉과의 사건도 그가 하나님의 필연적인 루트를 통과하는 중에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대두되는데 반드시 계획된 통로를 지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모래상자가 아무리 완벽하게 디자인되었어도 신자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크게 둘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자 개미의 상자에도 곳곳에 장애를 숨겨 놓았고 전갈이나 뱀이 설치기도 해서 기도를 통해 그 장애를 뚫어내어야 다음으로 진전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코스로 이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 탈출 게임처럼 다른 방으로 가는 문은 없는 대신에 힌트 징조 예표를 숨겨 놓았기에 기도로 문제를 풀면 원래 계획된 다음 코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방안에 갇힌 채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둘째로 그 상자 안에는 불신자 개미들도 함께 살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에도 전갈과 뱀들은 있지만 형형색색의 신나는 놀이기구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준 먹이를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싸움이 그칠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루트가 없어서 미로처럼 그 자리에 맴돌 뿐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인생의 출구 밖으로 나가면 그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좋은 곳이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출구로 가는 하나님의 루트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힌트까지 숨겨 놓았지만 신나게 노느라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소돔에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심판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조카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게 인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소명을 정확히 가르치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당신께 죄악을 사해달라고 탄원하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본문 말씀대로 아브라함더러 선지자적인 기도까지 하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직분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할 여유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남을 위하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역할은 같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선지자는 죄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아무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모두가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돌이켰고 새 생명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모래상자로 비유하자면 끝까지 하나님이 마련한 출구를 찾을 생각도 않는 불신자 개미는 신자 개미의 제사장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계획한 개미는 신자 개미의 선지자적인 기도로 출구를 빠져나가게 해주신 셈입니다.

### 선지자적인 기도를 하라.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보고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롯마저 의인의 가정에 들지 못해 심판 받았기에 그 동안 자기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지라는 후회가 계속 밀려왔을 것입니다. 소돔에 롯 말고도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소돔 왕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는 의심과 불만도 생겼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무리 선한 뜻으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마저 스쳐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내가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취해진 후에 다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치사한 잘못을 또 범하고 보니 잠깐이나마 하나님께 가졌던 불평과 의심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부끄러운지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부터 회개하고 도저히

염치없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제발 간섭해주셔서 사라를 보호하고 원상회복 시켜달라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아무 별도 주지 않고 그대로 응답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면이라고 없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웠기에 당신께선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와 맺은 언약이므로 당신께서 신실히 지켜나가면서 그를 그에 걸맞게 훈련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서 사라를 돌려받을 때에 그에게 왕자가 없다는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아직 아이가 없던 터라 동병상련의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인생만사를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내년에는 아들을 얻게 된다는 약속까지 받았기에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을 위한 기도가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생명이 잉태되는 복을 주었습니다. 롯에 대한 후회로 실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정해진 소돔 때와는 달리 자신의 그 언약한 기도마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는지 새삼 확인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선지자적인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은혜롭게 끝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비멜렉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기도해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남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 기도하면 그 본인의 이해타산 이기심 고집 자존심 등이 개입되지 않은 순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큰 은혜를 받은 셈이므로 그 은혜를 보상하고 싶어서라도 더욱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신 것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지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야 약속의 씨앗이 됩니다. 아비멜렉이나 바로의 씨가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사라의 정결을 지키는 것은 그분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본문에 바로 이어서 이삭의 출생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인류 역사 전체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광대한 상자가 태초부터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상자는 그에 비해 너무나 작는데 그를 우르에서 불러낼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상자 입구에 자리 잡게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상자의 출구는 이삭 인생 상자의 입구와 연결될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의 상자들도 죽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성육신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후 모든 신약 신자들의 상자도 믿음의 후손들의 상자로서 이어지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한 상자에 담겨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하고 이어질 것입니다.

## 어떤 상자에서 살고 있는가?

이 거룩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두 번의 처참하고 비겁한 실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더러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기도를 하게 해서 당신만의 거룩하고 완벽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분께 그와 동일한 신분과 특권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나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까?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완벽하게 디자인 된 거룩한 상자의 입구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때로는 개인적 욕심 자존심은 물론 죄성을 발휘하고 심지어 당신을 향해 불만과 원망을 하도록 허락해놓고도 반드시 당신께서 당신의 루트대로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영광스런 부활이라는 출구도 확정되어 있음을 알기에 세상에서 죄악, 사람, 사탄과 담대하게 맞서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신 까닭이 단순히 신자만 보호 인도하여 천국으로 이끌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자 안에 여러 불신자 개미들을 함께 살도록 배열해 놓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나아가 선지자적인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先知者)적인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을 만큼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도 없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사람들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라고 권유하며 또 오직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요컨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그가 가장 괴로워하는 일을 붙들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진심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비록 우리의 너무나 서투른 기도라도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려주고 최악의 도성의 심판마저 미뤄주십시오. 요나가 자기 민족을 잔인하게 괴롭힌 니느웨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붙들려 와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가 불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도무지 안 된다고 여겨집니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마누라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혼자만 살려는 치사한 짓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보다 못한 것 하나 없고 그 생각이 잘못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떠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선 담대해야 합니다. 불쌍한 이웃에게 불쌍한 마음이 가는대로 하나님에게 담담하게 아뢰십시오. 그럼 그것이 제사장적 기도요 선지자적인 기도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기도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크기만큼 응답해줍니다.

#### **\*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담은 시기에 관한 보충설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창 20:17 표준새번역) “Then Abraham prayed to God, and God healed Abimelek, his wife and his female slaves so they could have children again,”(NIV)

유독 표준새번역본과 NIV 만 17 절에 ‘다시’(again)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아비멜렉에게 왕자들이 있었으나 사라를 후궁으로 들이자 그 별로 그 집안에 태를 담았고, 그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자 태를 다시 열어주어서 생산이 다시 가능해진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해석한 내용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택한 형벌로는 분명히 너를 죽인다고(a dead man) 했지(3 절) 여자들의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불임이 된 것은 과거완료로 표현되었듯이 사라의 일보다 먼저 이뤄진 일로 봐야 합니다.

만약 그전에 생산을 해서 왕자들이 있었고 사라를 취한 후에 불임의 벌을 받았고 그녀를 돌려주자 다시 태를 열어 왕자들을 생산케 했다면 형벌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왕자들이 있는데 잠시 불임이 되었다고 해서 심각한 벌이라고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라를 택한 후에 그 벌을 내렸다면 현실적으로 그 벌이 취소되어서 다시 태가 열린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먼저 불임의 벌을 받았다는 사실도 아비멜렉이 아내와 여종들 모두와 관계를 맺고서 최하 3-4 개월 후에 일일이 검사해야 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기도를 부탁하여야 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후에 동일한 절차와 시간이 또 걸려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실이 간단히 언급되거나 최소한 유추할 수 있는 힌트도 전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오직 그릇된 사적 욕심으로 사라를 취했기에 벌부터 받았고, 아비멜렉은 설교에서 설명 드린 대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다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 또 왕자를 보려는 나람의 선한 뜻으로 사라를 취했기에 하나님이 경고하여 막아주신 것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표준새번역과 NIV 의 '다시'는 단순히 "이왕에 다 태를 담아놓았지만 열어주었다는" 의미로(열린 것을 닫고 다시 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 (창 22:1-8) 믿음이 완성되어야 기도도 완성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창 22:1-8)



## 혼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인생은 본문의 여호와께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거의 끝나게 됩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외아들 이삭을 장가보내는 두 사건이 더 있지만 그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던 신앙 여정은 사실상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고 그가 기도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기도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생각까지 통촉하시므로 마음속으로 당신의 긍휼을 소원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심지어 그분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해도 기도입니다.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진리를 어쨌든 인정한다는 증거인데다 정말로 그분을 사랑해야만 정말로 그분을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이슈를 두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만 해도 신자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전에 그런 상황을 주관하셨으니까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해주십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당신께 번제로 즉, 완전히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명령을 받자 다음날 일찍 군말 없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3 절) 마치 굳건한 믿음으로 아무 불평 주저 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어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세상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아브라함으로선 더더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의심과 원망을 품고서 크게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참으로 짓궂다 못해 너무 냉혹한 것 같습니다. 만약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나 계집 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심지어 아내 사라를 바치라고 했다면 갈등과 괴로움이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 아들이고 네 사랑하는 아들이며 외아들”(2 절)이라고 이삭이 그에게 주는 의미를 세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되며, 반드시 백세에 얻은 아들이자, 자기 생명과 바꿔도 절대 아깝지 않을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거기다 굳이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으니 그 며칠 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선 이삭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가려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 75 세에 우르에서 하나님께 불러 나올 때에 후손을 창대케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25 년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고 부부 둘 다 생리적으로 불임이었기에 초자연적 간섭을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그더러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삭이 며칠간 도보여행을 한 후에 등산까지 하고 제물의 종류를 알 정도면 청소년기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없어진다면 이삭이 최하 열 살이라 해도 자기 인생에서 35 년이 실종되고 그간의 연단과 시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백 살도 훨씬 넘게 살은 자기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인생의 싹도 피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꺾어버리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후손을 하늘의 못별처럼 창성케 해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등의 질문이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혼자만 받았기에 겉으로는 성경말씀대로 담대히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사라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세 번 강조했지만 사라에겐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귀한 아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에서 낳았기에 모정이 부정보다 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다 사라는 이삭을 자기 품에 안기까지 너무나 긴 인고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것도 이방 왕들과 자기 하녀에게서 온갖 수모를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수치를 다 겪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심술이 나서 다시 데려가려 하느냐고 당장 따지고 들 것입니다. 절대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려가려면 자기를 먼저 죽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이 온유한데다 두 번이나 사라에게 결정적 잘못을 범했기에 그런 저항을 결코 뿌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정을 털어놓고 의논할 수 없으므로 아브라함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날 밤도 혼자 속으로 온갖 고민과 갈등을 하며 뜯 눈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사라에게 단순히 이삭과 함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는 식으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서 부랴부랴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환들은 물론 특별히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말지 못하게 시종일관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선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 대적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자기가 6 번이나 중보기도를 했어도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구체적으로 지시한 명령을 어긴다면 어떤 결과가 될지 너무나 뻔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줄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한 그의 여정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는 형국이었을 것입니다.

## 죽음에 대한 다섯 가지 반응

퀴블러 로스라는 미국 정신과 의사 겸 심리학자는 사람이 말기 암 같은 죽음을 선고 받으면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한두 단계가 생략되거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지만 대체로 일리 있는 이론입니다. 먼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죽음 자체를 부인하다가, 확정된 사실이므로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분노하고, 대체 방안이 없을지 추구하거나 시일을 최대한 늦춰보려 노력하다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음을 알고는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의 변화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아브라함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이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다가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라 이럴 수는 없다고 부인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로선 여러 번 잘못을 범했지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께 충성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하다 싶어서 분노의 감정도 치솟았을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이삭과 사라가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부인과 분노의 감정은 의지적으로 가라앉힌 후에 뭔가 해결책이 없을지 따져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상호 모순되는 명제가 양립하고 있어서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믿음의 후손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지금은 그를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이삭 대신에 차라리 늙은 내가 번제로 바쳐지면 안 될까요라고 계속 기도했을 텐데 퀴블러의 이론으로는 협상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 방안 말고는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거나 사라와의 사이에 새 아들을 또 주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시키는 것은 제물로 바치게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삭 대신 둘째 아들을 준다 해도 두 사람의 나이로 보아 너무 무리이고 두 번이나 바로와 아비멜렉에게서 사라의 정결을 지켜주신 의미 또한 전혀 없습니다.

모세와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구원과 자기 구원을 간접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생명을 자기의 것과 직접 바꾸어 달라는 뜻이라 정말로 진지하고 애타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거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삭을 기어이 데려가겠다면 번제로 바친 후에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을 번제로 바친 후에 혼자 돌아가면 더 이상 사라와는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며 그 사실을 알게 될 아내가 너무 불쌍하니 제발 이 명령을 거두어달라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런 기도를 아무리 간절히 해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직통으로 구체적으로 주신 명령을 다시 반복 취소할 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해결책이 안 서도 퀴블러의 넷째 단계인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대신 거두어가 달라는 기도를 하는 동시에 너무나도 무리한 지시를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따지고 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선 하나님이 지난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회상해서 그 뜻을 추정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매 사건마다 달라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만 진행됩니다. 이미 받았던 은혜의 체험들을 비교해보면 그분이 사역하시는 공통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퀴블러의 이론은 일반인이

대상입니다. 사망선고처럼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사태를 역전시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소망을 키워가는 신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흘간 무엇을 고민했는가?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게 된 경위부터 천천히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적 생각으로 충실한 종으로 후사를 삼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낳 자여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고에 따라서 첩 하갈과 관계를 맺고서 자기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가정의 분란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본처 사라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야 온전히 그의 몸에선 난자로 약속의 후손이 된다고 다시 깨우쳐주었습니다. 자신의 두 번의 큰 실수에도 끝까지 사라에게 이방 왕들의 씨가 섞이는 것을 당신께서 혼자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합 네 번이나 간섭하여서 약속의 씨앗이 반드시 사라에게서 나도록 주관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얻은 이삭이라면 반드시 그를 통해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그 구체적인 방식은 몰라도 절대 어길 리 없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을 것입니다.

우르에서 갈 바 모른 채 불러 나온 이후의 자기 인생도 곰곰이 따져보니까 큰 실패, 기근, 전쟁 등 여러 시련을 거쳤으나 그분의 거룩한 뜻은 반드시 이뤄졌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께선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그 일은 당연히 바로 앞의 사건(창 21:22-34)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이전에 맺었던 동맹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회상은 아비멜렉과의 첫 만남까지 이어져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가 단혔으나 자신이 기도하여 치유되어 후손을 얻게 된”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열린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창 21:1-2)라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뤘다”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려는 약속대로 어김없이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간의 영적씨름 끝에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 역사의 일관된 원리를 깨달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만 주목하다보니 그로 인해 생긴 자신의 감정에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주신 외아들을 왜 빼앗으려는 지에 초점이 모이고 그분에 대한 의심과 불만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들을 곰곰이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지켜주실 것 같고 어쨌든 협력하여 선하게 이끌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간절함으로 사흘 내내 자기를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삭과 단 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를 제물로 드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제물을 따로 준비 해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을 것입니다. 그럼 상호 충돌되는 두 명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리라”(8 절)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이 없지 않느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긴 하지만 그를 안심시키려고 둘러댄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둘이 함께 산에 오르며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4 절) 이삭이 번제로 바칠 제물에 대해서 묻기(7 절) 전이었는데도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복수로 즉, 이삭과 함께 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된 아브라함

그로선 약 이천 년 후에 지금 오르고 있는 모리아 산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되고 그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바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이 죽을 판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로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긍휼만 전적으로 족, 십자가에 실현된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의 긍휼을 바랄 자격이 안 되어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럴수록 더더욱 바랄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결국 사흘간의 심히 괴로웠던 갈등 끝에 하나님이 따로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할 것이라는 믿음이, 최소한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시는 성령님이 그의 생각의 흐름까지 다 주관하시면서 당신께서 심어주신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혼란스러워 캄캄했던 심령에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을 살피면 그가 확실하게 깨달은 사항은 분명히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뜻대로 세상 어떤 존재에게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이고 영원불변의 진리 외에는 자기로선 감히 그분을 이렇다 저렇다 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뀌 말해 자기와 이삭을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자기 전부를 그분께 던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났습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쳤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삭은 물론 자기 생명까지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는 모든 외부의 현실적 상황은 물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만 일대일로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의심과 불평에서 비로소 해방되었고 대신에 소망과 믿음이 조금씩 자기 속에 역사하기 시작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의심 불만 원망을 이길만한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의 심령에 채워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따져보자면 상당한 모험이자 큰 위험부담이 걸린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이삭을 살리려고 요나처럼 도망갔더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계획은 물론 그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마저 무산 될 판입니다. 요나처럼 붙들어와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그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집니다. 후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믿음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끌고 올 것이니까 도망가도 된다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류구원 계획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맞바꾸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험의 목적은 크게 둘입니다. 우선 그가 떠나온 우르의 이름이 '불'(fire)이듯이 사람을 번제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유명했고 아브라함은 75 년 간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혹시라도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을지 모르는 인신 제물로 신을 섬기는 관습과 사고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래 절대로 인간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간이 아무리 지극한 치성을 바쳐도 그것에 비례해서 복을 주어서 현실 삶만 풍요케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진리를 정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나아가 당시 세상 최고의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두 번의 실수에서 생생히 증명되듯이 인간의 선행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합격점수에 들지 못하니까 그 죄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원수가 된 죄까지도 당신만의 긍휼로 용서해주시되 그 죄 값은 너무나 크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그 은혜를 겸손히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더러 당신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 아브라함처럼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구체적 사실까지는 몰라도 이 사건으로 복음의 원리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것을 넘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자기에게 조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주시고 더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은 물론 자기 후손들의 인생도 오직 그런 긍휼의 복음으로만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형성시켜준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 믿음과 기도의 완성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기 까지는 그도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사흘간의 여정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았을 것이며, 영적으로는 주님이 사흘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계시해주면서 굳건한 믿음에 세우게 하려는 하나님만의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고 또 그래서 기도도 완성시키려고 이런 시험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가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근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매우 단순하며 원색적이고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당신 혼자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테니까 앞으로 이 종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만 인도해달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완전히 내려놓습시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병원에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나서 끼니마저 걱정해야 할 때, 자기 소원과 계획을 이루려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고난만 덮칠 때 등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면 비로소 기도가 조금씩 응답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실은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목할 사항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 전후에 현실상황이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지 않은 것이 큰 은혜이긴 해도 원래 살아있던 그대로이고 오로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려 한 것입니다. 단지 그의 믿음과 기도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믿음의 변화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확신이 생겼고, 기도의 변화는 자기 요구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 자신의 전부를 들어 사용해달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적 방식으로 말기 암이 나아야 하고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내 계획이 풍성히 이뤄지기만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과 계획을 잠시만 유보할 테니까 여전히 자기의 것을 하나님이 더 좋고 풍성하게 바꿔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완성부터 되어야, 최소한 그런 목표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진 모든 것은 물론 그 자신마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다 돌려드린다고 해야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모습과 같아집니다. 이 사건 뒤에 사라가 죽는 기사가 따라 나옵니다. 물론 수명이 다 되어서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섰고 이삭 또한 아브라함을 잇는 둘째 조상으로 든든히 설 것이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에서 사라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선불리 이삭을 바친 믿음을 본받아 실천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뱀새가 황새 따르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인생 말년에서야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가나안 전쟁의 승리 말고는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전쟁조차 진짜로 생사가 오가니까 가장 큰 걱정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요컨대 그는 평생토록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중에는 자기 혼자 살려고 두 번이나 마누라를 파는 역사상 가장 치사하고 비겁한 남편의 불명예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나흘 정도 죽었다 살아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백십 여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악한 세상 앞에 드러내어야 할 신자는 아브라함과 유사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반드시 그와 같은 영적씨름을 겪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은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힘들어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없고 결국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고야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분께 전부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것 모두가 없어지더라도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거나 삶의 목적이거나 심지어 염려꺼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기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만 죽으라고 희생하고 손해 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모두 당신의 영광스런 일에 동참시켰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당장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만의 선한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앞서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 최소한 그런 소망을 놓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그분께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완성시켜주실 것입니다.

## (마 6:9-15) 세 가지 단계로 기도를 발전시켜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9-13)

## 기도는 세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기도는 반드시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며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나에게 무엇을 달라는(give me) 기도, 둘째 나를 바꿔달라는(change me) 기도, 셋째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는(use me) 기도의 순서대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던 정황과 의미를 아홉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그의 기도들도 그런 방식으로 성숙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으로 가르치신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도 그 세 가지 기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내용으로 따지면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하거나, 그분을 깊이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 달라고 하거나, 그 뜻에 대한 징조나 사인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특정한 사안을 두고 서원할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거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멸망시켜 달라고 하거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을 의심 원망해도 기도입니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기도해도 크게 그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원기도도 자기가 어떤 헌신을 할 테니까 하나님도 어떤 것을 해달라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신자들이 주로 첫째의 자기에게 달라는 기도만 하고 둘째 셋째 단계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설교나 성경공부 등을 통해 언뜻언뜻 배웠어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실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자는 무엇이든 언제든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신자들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첫째 단계의 기도만 계속 머무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자칫 응답 받지 못한다는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세 기도의 이름에 이미 드러나 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 비추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에게 무엇을 달라는 기도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모두가 평소에 늘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문제나 고난을 해결하고, 자신의 소망과 계획이 이뤄지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풍요케 해달라는 최소한 평안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둘째 자기를 바꿔달라는 기도는 외적인 현실상황과는 관계없이 자기라는 존재 자체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허물 잘못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등이 바뀌고 자기 인격과 성품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싶은 소망과 믿음과 열정이 생기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첫째 기도가 신자의 외부 여건을 자기 뜻에 맞게 바꿔달라는 것이라면 둘째 기도는 신자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헌신된 당신의 종으로 양육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셋째 자기를 사용해달라는 기도는 둘째 기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분의 일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 나왔다고 철저히 인식했다면 당연히 그분의 거룩한 일에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전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기에 실제 생활 방식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요구는 없어지거나 더 이상 큰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신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 은혜가 베풀어져서 죄에서 구원받고 그들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치면서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셋째 기도는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비롯해 영혼 구원을 간구하는 중보기도인 셈입니다.

## 아브라함의 기도의 변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우르에서 불러 나올 때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며 후손이 하늘의 못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연히 그 약속에 합당하게 자기에게 이것저것 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이민 초기에는 현지인들의 훼방이 없어서 안전하고 초지와 물이 많아서 목축하기에 적합하며 우상 신전이 없어서 영적으로도 평안한 거주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되어서 가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네게브 사막에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비록 아내 사라가 실제로 이복누이이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말하기로 약속했지만 바로의 후궁으로 취택되어 할렘에 속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큰 잘못입니다. 제발 사라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애타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자기에게 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적인 간섭으로 원상회복이 된 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치사한 잘못과 죄부터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자라고 범사를 주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분별하여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꿔 달라는 둘째 기도에 해당됩니다.

그런 변화의 결과로 애굽에서 돌아오자 조카 롯과 초지와 물이 모자라 서로 헤어질 때는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실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일임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큰 잘못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이루심을 확인했기에 이번에도 자신을 당신의 뜻에 맞게 들어서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한 셈입니다. 당연히 조카의 앞날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인데 이 또한 셋째의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후에 가나안 연합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자신과 자기 군대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에 승리케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전쟁 승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달라는 기도이나 인명 피해를 최대한 막아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보하자 조카 롯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여섯 번이나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신이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셈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삼촌으로서 평소에 조카의 안위와 믿음에 전혀 무관심했음을 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격 믿음 소망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숙시켜 달라는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범한 잘못을 다시 범해 사라가 아비멜렉 왕의 후궁이 되었을 때도 아내를 구해달라는 기도부터 간절히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이며 아내를 무사히 돌려받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태가 닫힌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 기도해주어서 생명을 잉태케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기도까지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선 그는 지난 모든 기도들의 완결판인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과 이삭의 생명마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삭을 통해 믿음의 후손이 창대케 되는 당신의 계획을 당신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니 자신은 죽으나 사나 그 일에 쓰임 받은 것만도 감사하며 영광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성적 판단력과 당시까지 형성된 믿음에 따라서 자의로 기도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 원망하는 기도도 했고 가나안 전쟁 중에는 자연스레 적군을 멸망시켜달라는 저주의 기도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 기도에 대해 배워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 순서가 뒤바뀌거나 한 번에 세 기도를 다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의 모든 기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자기에게 달라는 기도보다 자기를 바꿔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온전히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에 이른 것도 분명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그만큼 기도도 자라게 되며 역으로 기도가 자라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 주기도문에 포함된 세 가지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범 기도문에도 정확하게 이 세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11 절)가 자기에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세끼 어쩌면 두 끼 해결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생업과 일상생활의 모든 차원을 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신자라면 자신이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따르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계에 제한 받는 인간으로선 아무래도 당장 눈에 띄는 현실에 관심이 가장 먼저 많이 쏠립니다. 자연히 기도도 그런 일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다고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쳐선 마치 큰 나무 밑 성황당에서 매일 아침 찬물 한 그릇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처럼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지 수십 년이 되어도 계속 이것저것 달라는 기도만 하면 스스로 성장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밥 달라, 잠 오면 안아서 재워 달라, 심심하면 와서 놀아달라고 계속 징징대며 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매번 사탕을 달라고 하지만 그대로 다 주는 아버지도 없고 만약 다 주면 이빨만 썩습니다. 그런 아기도 분명히 자기 아이인 것은 틀림없지만 육체와 정신이 유아상태에서 성장이 멈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가 계시된 성경과 기도라는 영적무기를 갖고 있고 그 둘을 온전하게 적용하도록 인도해줄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경과 성령님이 완전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용돈만 달라는데 응할 부모가 없듯이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도 귀를 닫으십니다.

오래 전 미국의 한 코미디 영화에서 신이 된 주인공이 신자들의 복권 일등에 걸리게 해달라는 기도에 전부 예스라고 응답해주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인당 몇 불씩 밖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자들이 복권 같은 대박의 형통만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통렬한 풍자였습니다. 신자들의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응답해주면 모두가 쾌락에 젖어서

육신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실제로 복권당첨자들의 인생 말로가 거의 대부분 비참해졌다는 것은 통계가 증명합니다.

둘째 자기를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12,13a)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부터 회개하고 계속해서 시험과 악을 막아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껏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계속 사탕만 요구했던 미숙한 믿음부터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자라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까닭은 성경을 정확히 배우지 않고서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불신자 시절의 습성과 사고를 버리지 못해 시험에 빠졌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될 수 있게끔 성령님이 간섭 역사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9,10 절)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자 자신의 삶과 인생은 물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죄악으로 날로 타락해져가는 이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소돔의 심판을 보류하려는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했고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적인 기도를 했으니, 주님 오시기 이천여 년 전에 이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주님의 이 가르침대로 실천한 셈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대로 땅에서도 그대로 실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선 당신의 생명책에 이름이 오른 택한 자들을 구원해야 하며, 각 인생과 공동체와 나라의 운명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통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류역사 전체를 주관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공훈의 원리가 하늘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택한 자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여 마지막 대적인 죽음을 정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정표대로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 거룩한 일에 미약하나마 일부를 맡아서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가르치신 것도 실은 셋째 기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야만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제대로 알게 되어 참된 경배를 돌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도 셋째 기도에 해당됩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 남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놀랍게도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기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다르지만 반드시 주목할 사항은 예수님이 셋째 기도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서에 상관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셋째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신앙연륜이 쌓일수록 셋째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빨리 그래야 합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아무래도 급한 순서대로 기도하고 둘째 셋째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서 실천하려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주기도문의 내용에만 주목하는데 바로 덧붙인 말씀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14,15 절)

언뜻 남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때로는 남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찾아가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는데도 비겁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치웁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구원에 적용하면 정말 구원 받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주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후에 하신 말씀이므로 기도에 적용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셋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도이고, 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를 바꿔달라는 둘째 기도입니다. 따라서 남을 용서하는 즉 셋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둘째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하며 그 샅이 죽음인 줄 절감해야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다른 이의 죄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신자들이 첫째 자기에게 달라는 기도만 하고 둘째 셋째 기도는 하지 않으면 첫째 기도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가르친 후에 굳이 해석이 어려운 이 말씀을 덧붙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자신부터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만 당신의 일에 참여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뤄진 뜻이 땅에서도 이뤄지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의 종착점이자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 기도한 대로 실천해라.

주기도문을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눈감고도 외우고 때로는 예배 중이나 마칠 때에 다 함께 이 기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기도를 하지 않는 죄부터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금의 타락한 세태를 보면 아니 자기 주변만 살펴봐도 신자가 행해야 할 주님의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는 일이라곤 교회에서 조금 열심을 내는 것을 핑계로 사지가 멀쩡한 어른이 발달장애인 시늉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머무르게 된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는 대체로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의외로 쉽게 그 큰 고난이 해결되는데 그 체험이 너무 은혜로웠기에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에게 달라는 기도 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연히

위급할 때만 기도하면서 저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고 열정적으로 떼를 쓰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자신이 할 바를 다한 양 착각합니다. 말하자면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이 '뽕'하고 응답해주기만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은 일 년 365 일치 양식이므로 기도만 한다고 양식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정당한 방식으로 생업을 성실하게 운영해나가야 합니다. 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범사를 하나님의 중심을 분별하여 반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순종해야 하고 그 전에 자신이 평생에 행할 소명이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확정지어야 합니다.

세 단계의 기도가 이웃을 위한 기도로 성숙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만 기도가 완성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신자의 기도는 결국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꿔 말해 이 세 단계 기도원리가 신자가 이웃을 대하는 자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초신자 시절에는 아직도 세상 앞에 자기를 높이려는 본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남들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요구만 합니다. 예컨대 가족이나 교회 성도나 심지어 목사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가 올바르고 성경적일 수도 있으나 자기부터 너무나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살아 있는 죄인임을 온전히 절감하지 못한 탓입니다. 불신자 시절의 습성이 남아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으려 드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무엇인가 받기를 바라거나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이런 자세만 버려도 이웃 사랑에 성큼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비로소 이웃도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의 상황과 입장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자신에게 바라는 바에 맞춰 자신을 바꿔나가려 노력하게 됩니다. 부부 각자가 배우자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식이 바라는 부모로, 하나님이 바라는 신자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는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손해와 희생이라도 감수하고서 기도해주고 있는 상대를 살리는 일에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사용해주면 어떤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섬기겠다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 주기도문을 내 언어로 바꿔라.

이런 이웃 사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세 가지 단계로 성숙된다면 즉, 빈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려 노력은 할 것입니다. 다른 이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정반대라 해도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먼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찾아가 실제로 용서한 후에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의 긍휼로 품어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고 실제로 주님이 이 땅의 삶에서 실천하신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만일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실천으로 바꾸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위선을 떠는 셈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커도 도리어 예수님께 야단을 맞으며 교회에서 영적으로는 쫓겨날 것입니다.

이 세 기도가 공부하듯이 순서대로 밟아갈 수 없고 셋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그런 기도만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부터 신경이 쓰이니까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정으로 받기만 해도 둘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들부터 기도하더라도 문득 불쌍한 이웃이 생각나면 성령의 인도이므로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럼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이웃이 불신자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반드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한두 번 쌓이면 이웃을 위하는 기도를 더 많이 아니 주로 하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럼 반드시 올바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 고백하지 말고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지금 나의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과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임해달라고 육하원칙을 갖춘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뤄진 뜻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한 명이라도 겸손히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전에 자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실토하고 습관적인 죄부터 고쳐나가야 하며 이웃이 나에게 범한 잘못들도 진정으로 용서하고 찾아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즉, 발육이 완전히 멈춘 영적 불치병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로 하는 기도가 나에게 달라는 기도, 나를 바꿔 달라는 기도, 나를 사용해달라는 기도 중에 어디에 와있습니까?

### (마 18:15-20) 합심하여 기도해 무엇이든 풀어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15-20)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도 아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를 하셨고, 기도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기도마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위선적 행태를 꾸짖었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을 절대 따르지 말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살펴본 대로 주님보다 이천여 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성숙되어졌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신자들은 거의 그 모범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려는 의도는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예사로 잘못된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중요 원인 중의 하나는 성경을 도덕적 종교적 계명을 하나씩 따로 모아 놓은 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각 개별구절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가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으므로 기록된 문자적 의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절 문구 단어 하나하나마다 따로 떼어서 일일이 도덕적 종교적 의미부터 찾으려 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경건한 의도로 해석한 내용이 종종 본문과 상치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마저 생깁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해석했으니까 무엇이 틀렸는지 모르고 도리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 합심해서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이 산상수훈 외에도 기도에 대해 여러 번 가르쳤는데 그 말씀들도 너무 표피적으로 이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구절들이 마침 네 복음서마다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인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도 단순히 18-20 절만 따로 떼서 읽고는 문자 그대로 기도에 적용해버립니다. 신자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 자체를 틀리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이 맞으려면 혼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나 환난이라도 구역예배나 기도모임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교회생활에 충성하는 신자는 현실에서 어떤 고난도 없고 형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듣게 되는 소식들은 정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렸다, 어떤 안수집사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갱단에 들어가 사고 쳤다 등의 소문들이 쉬쉬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을 털어놓으면 믿음이 안 좋다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으니 당사자들은 비밀로 부쳤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분들이 외부에 기도부탁은 하지 않았어도 집안 식구끼리 즉, 성도 두세 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해석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바꿔 먹어야 하는데도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아직 온전히 성숙되지 못했고 수시로 죄를 짓고 있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보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공부하고 성실히 교회봉사를 하고 무엇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아야만 기도를 응답해주신다면,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신자도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과 간절한 마음과 순진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환난이 닥쳐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교회에 처음 출석해 믿음이 연약했던 시절의 기도가 오히려 응답이 잘 되었던 경험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믿음이 좋은 자들끼리 모이라고 또 먼저 너희 죄를 회개한 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경험하듯이 신앙연륜이 쌓일수록 기도 응답의 실패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합심하는 열정과 기도의 양이 아직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죄송하지만 일부 강단에서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 사고는 기독교 신앙과 전혀 무관합니다. 순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에게 바치는 기도의 양에 비례해서 응답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나 신자와 밀고 당기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이해 타산적으로 접근 분별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외의 어떤 것에도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신자가 생명이 걸린 문제를 두고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도 오직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순교할 자는 순교 시키고 살려 줄 자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신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에게 드려도 될 만한 선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은총이 없으면 한 시도 살아갈 수 없기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성실히 봉사하는 믿음이 좋은 신자, 아니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기도할 힘도 기분도 나지 않아서 속으로 그냥 주님, 주님하고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귀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본문 말씀대로 기도해도 그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상한 판단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신자들더러 함께 모여서 기도를 자주 많이 하게끔 하려고 과장해서 독려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합심해서 기도해도 무엇이든 다 이뤄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의를 봐서 가끔 응답을 잘 해주겠다는 뜻을 강조하려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을 예수님이 신자를 독려하려고 과장했다고 여기면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해석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 진리를 순전하게 계시하십니다. 예컨대 당신의 백성더러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100% 순전한 당신의 진심입니다. 반쯤만 노력해도 그 정성이 가룩해서 복주시겠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인간 신자의 잘못일 뿐입니다.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순전한 진심이므로 정확히 헤아려보아야 합니다.

## 형통의 기도인가? 용서의 기도인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하고, 합심하여야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만 모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 세 조건을 필요 이상으로 채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이든 응답받지 못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선 외적인 조건에만 맞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의 전체 맥락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만 따로 떼어내 문자적으로만 살폈기에 그 해석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19:1 에 가서야 말씀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므로 18 장 전체는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럼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나 최소한 논리가 물 흐르듯이 정연하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스승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물었고(1 절)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대답했습니다.(2-5 절) 그리고 그런 소자를 절대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이라도 다시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6-14 절) 그 후에 본문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교회 안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15-17 절) 그리고 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뤄준다고 했습니다.(18-20 절)

그럼 당연히 기도하는 내용도 죄를 범한 형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어지는 21 절 이하를 보면 그런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때에 즉, 예수님이 합심기도를 가르친 후에 베드로가 만약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주어야 할지 물었습니다. 주님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베드로로선 본문 말씀을 정확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용서에 관해 물어 봤다면 합심기도에 관한 말씀도 그런 주제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하면서 종들과 회계하는 임금의 비유로써 천국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질문한 것(1 절)에 대한 결론도 되는데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주는 자가 가장 크다고 대답한 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먼저 교회에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뜬금없이 합심기도만 하면 무슨 문제든지 형통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으로 말씀하실 리는 없습니다. 문맥상으로 따지면 교회가 죄를 범한 형제를 권징할지 용서해주어야 할지에 관해 뜻을 하나로 합하면 그대로 이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문

말씀이 교회가 죄를 범한 형제를 권징 하는 절차에 관한 차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다 교회가 죄인을 판단 정죄할 권세가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어디까지 용서해주어야 할지 물었을 때에 가르치신 비유의 내용과 결론을 보십시오. 주인이 무려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이 불쌍해 탕감해주었더니 막상 그 종은 자기에게 겨우 백 데나리온만 빚진 동관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끝까지 빚을 받으려 추궁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종을 잡아다 일만 달란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35 절)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모범기도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의도도 교회가 징계보다 용서해주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14 절)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 본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즉,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를 다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 교회의 역할을 다시 가르치신 예수님

그래서 죄를 범한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혼자만 은밀히 찾아가서 권하라고 합니다.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절 발설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달라고 상대를 위하는 진심을 담아서 용서의 뜻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고를 들으면 형제를 얻는다고 했으니 당연히 형제를 다시 얻는 방향으로 권고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형제가 곧바로 회개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하고 그 자리에서 둘이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이전 잘못을 씻고 서로 더욱 사랑하겠다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합니다. 율법의 규정 상 증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먼저 한 사람이 찾아갔으니까 한두 명을 데려가면 두세 명이 됩니다. 단순히 율법 규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와 친하거나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찾아감으로써 부담 갖지 않게 하고 개인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라는 것입니다.

두세 명의 친밀한 권고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권면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를 징계하려는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 형제로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되 14 절에서 설명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겠다는 마음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런 의사를 교회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간곡히 또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 된 그 마음마저 거부한다면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사고로는 이방인과 세리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의 대표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가 어떤 이를 판단 정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며 심판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라고 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회개만 하면 다시 형제로 온전히 받아주겠다는 진심을 전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그 본인이 교회의 형제가 되기 싫다는 완악한 뜻을 전교인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문맥상 교회가 권징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한 후에 합심기도를 하면 무엇이든 응답된다는 뜻으로 말씀했다면 아주 부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큰 능력을 강조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관해서 이전에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의 의견을 묻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교회가 행해야 할 일에 대해 본문의 18,19 절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본문에선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했습니다.

## 교회의 본질은?

동일한 맥락에서 주님은 20 절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므로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과 조직을 갖추고 예배 같은 정기적 종교 활동이 없어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가 행해야 할 역할이 바로 땅에서 매고 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예수로 번역된 이름은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주이자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도 주님의 이름이 됩니다.

히브리 사고에 따르면 이름은 단순히 정체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인생 하는 일 전부를 대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란 성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할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속을 다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여 천국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도들을 거룩하게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것도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되는 최저 정족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파송되면 교인이 생기기 전까지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 보게 되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므로 선교사 그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최소정족수는 성령의 간섭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한 명이라도 됩니다.

나아가 합심 기도의 최소 숫자를 규정하려는 뜻도 아닙니다. 앞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하고 교회에 보고할 때에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두세 명이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증인들부터 또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죄를 범한 형제를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하면서 땅에서 풀어주는 기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간섭하여서 그로 하여금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로서 성립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부터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본문에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14 절)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물론 개별 성도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 교회가 출교시켜도 되는가?

문제는 당신께서 한 명의 소자라도 잃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회가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죄를 범한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가르치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시고는 다시 그래도 된다고 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했습니다. 언뜻 예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예정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이미 생명책에 올라가 있습니다. 각 개인의 구원 여부에 관한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뤄진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누가 구원으로 예정되었는지 끝까지 모릅니다. 모든 조직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있는데 목사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성과 태도만으로는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여부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교회는 오직 모든 이를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그 구원은 물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해서 매고 푸는 대상을 즉, 구원 받을 자를 신자와 교회가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 뿐입니다. 매는 것은 사탄의 권세이고 푸는 것은 그 권세 아래 노예가 되어 범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행하는 중보기도의 권세가 사탄의 흥계와 모락을 묶을 수 있을 만큼 커다는 것이지 하늘에서 정해진 구원과 심판여부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나 교회목사라도 다른 사람은 설령 천하의 패륜아라도 절대로 판단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신의 죄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한 교회의 간곡한 회개의 권고마저 듣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0 장) 성경은 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고 증언합니다.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형제를 출교시켰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나중에 반드시 중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라면 예수님의 수차례의 권고를 완악하게 뿌리친 가룟 유다처럼 제 갈 길로 갈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친 비유에서 왕에게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고도 다른 이는 용서하지 않는 종은 예수님의 음성에 완전히 귀를 막은 자로서 본문에선 교회의 간절한 권고를 세 번이나 거절한 형제에 해당됩니다.

## 예수님이 세울 나라의 특징

본문에서 18-20 절만 따로 떼어서 보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불과해집니다. 전체 맥락에서 살피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질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미 가르치신 내용을 복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모든 죄인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선 세상에서 통용되는 신분 지위 권세 재물 학력 가문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므로 모든 이가 똑같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당신의 십자가에 실현된 무조건적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은 물론 원수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런 섬기는 과정에서 따라올 수 있는 오해 질시 비방 음해 등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는 고난이라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신자인 가난한 말단 직원이 불신자인 대기업 사장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함께 기도하는 두 사람의 심령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도 이것입니다.

그 나라에선 오히려 다른 이를 살리려고 자신을 낮추고 어떤 대우를 받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형제를 끝까지 용서해주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용서해주는 횟수를 물었는데 그 속내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세우실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와 그와 결탁한 불의한 유대 당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의 이전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의 표상이자 그 백성들을 양성해야 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언뜻언뜻 보입니다. 기독교가 정치권력과 손을 잡아서 인간 사회에서 권세와 명예를 높여서 즐기려 합니다. 세속적인 신분 재물 학력 권력 등이 높으면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로 대우 받습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뜨겁게 오래 정성껏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실은 담임목사에 얼마나 충성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현실 삶의 형통도 좌우된다는 우상숭배 식의 가르침마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를 두고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순전한 복음을 전하며 본문의 말씀대로 서로 용서하며 주님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님들과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합심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또 사실상 응답도 비교적 잘 됩니다.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줍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욕심, 고집, 편견, 교만 등도

아무래도 거의 개입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행하는 기도 중에 가장 순전한 기도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선 큰 잘못입니다. 신앙에서 어떤 특정한 방법이 특별한 효과를 내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방법에 제한 받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로 전락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도 개인적으로는 중심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합심하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부터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는 바도 신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서 확정되어 있는 십자가 복음사역이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또 그 일에 자신을 들어 사용해 달라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에게 달라는 기도와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와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는 기도 중에 어느 단계의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 (막 11:20-25) 기도하면 무엇이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막 11:20-25)

## 예수님은 허풍쟁이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간단하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히 12:2) 라고 정리했습니다. 신자가 믿어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당신께서 신자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적용하면 주님은 신자들의 기도를 받아서 응답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올바른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실제 그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게끔 성령으로 간섭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고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응답하겠다는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자 모인 무리들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고 말한(마 7:29) 이유입니다. 인간 종교 지도자라면 “그대로 되리라” 혹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식으로 절대 장담할 수는 없고 그러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확증했으니 본문만큼 기도할 때 큰 힘이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이 말씀을 접하는 신자들은 그리 확신하지 못하고 도리어 조금 혼란스러워 합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로 빠트리시는 것은 상징적 의미일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너무 과장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거기다 무엇이든 기도하면서 이미 이뤄진 것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기도가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매직 램프 같고 예수님은 푸른 거인 같습니다. 또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언뜻 긍정적 사고나 자기최면처럼 들립니다.

거기다 교회에선 신자는 성경말씀에 대해 조금이라도 묻거나 따져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처럼 순전히 믿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고 했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심쩍기는 해도 어쨌든 본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분은 절대 아니며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정도로 과대 포장해서 말씀하실 분도 아니므로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마냥 궁금해집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가장 과장법을 많이 쓴 것 같은 본문이지만 기록된바 그대로 해석해야만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절대 의심치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전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선 본문 자체의 해석이 어려우니 따져볼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이 아프도록 강조한 대로 앞뒤 문맥에서의 뜻은 아예 감안하지 않고 본문만 따로 떼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성경은 기록된 때와 지금과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아주 큰 간극이 있는데도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을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대의 역사 관습 문화 등은 물론 특별히 그 언어를 잘 알고 있으므로 당시의 성경인 구약말씀을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행 17:11) 너그럽다는 것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학문이 많고 대범하다는 뜻인데 당시로선 지식층이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만 정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날마다 즉, 계속해서 더 많이 따져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오래 전 먼 나라에서 일어난 생소한 일들을 그 나라 말로 기록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지 더더욱 상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미신 내지 광신입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문화나 관습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첨가한 주석 성경은 물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말씀을 간절히 받고 싶다면 일반 신자들도 신학 전공자 이상으로 혼자서도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구태여 관련 자료를 찾아서 참조하지 않고도 앞뒤 문맥만 꼼꼼히 따지면 정확한 뜻은 물론 저자의 의도까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 자기 멋대로 행하는 예수님?

우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명해도 그대로 이뤄진다는 말씀부터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봅시다. 가장먼저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20,21 절) 그 전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14 절) 실제로 뿌리까지 말라서 완전히 죽었다고 베드로가 스승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수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실현했기에 단순히 당신의 능력을 믿으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적은 주로 사람을 상대로 했으나 이번에는 말씀 한마디로 나무의 생명을 뿌리부터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만물의 생명을 당신의 의지대로 주실 수도 앗아갈 수도 있는 존재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자연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신지라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믿음의 주로서 서기관과 다른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이 말씀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상고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인간 신자더러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는 식으로 명령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기도하라는 설명을 덧붙이긴 했지만 받은 줄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천지개벽까지 일으켜준다고 하니까 여전히 온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고 이렇게 저렇게 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운행질서를 바꾸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한다고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큰 능력을 지닌 선지자 엘리야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가뭄은 삼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갈멜 산에서 우상 주술사들이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하루 종일 빌어도 우상 신들의 능력은 전혀 없으니까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엘리야가 기도하자 금방 폭우가 쏟아졌는데 우상숭배의 죄악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왕상 18 장)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이 기도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했는데도 바다를 갈라주었는데 마찬가지로 당신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물을 아무리 하찮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라도 당신께서 저주할 리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장한데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곧바로 저주해버렸습니다.(12,13 절) 예수님의 성품으로나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저주였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이적들이 유익했는데 반해 유일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인 것은 단순히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갈멜 산이나 홍해 때처럼 당신만의 특별한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어제 아침에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당연히 열매가 있으리라 믿고 다가갔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저주했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13 절 b) 무화과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요 열매를 맺는 계절도 당신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정해준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저주하면 예수님은 매사를 당신 기분대로 행하는 변덕쟁이가 됩니다.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또 예수님이 단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수님

나무를 저주하신 목적 또한 문맥상의 의미를 잘 상고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곧바로 시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14 절) 곧바로 성전에 올라가 하루를 보내고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19 절) 나갈 때는 밤이라 제자들이 나무를 쳐다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밝을 때에 그 나무 앞을 다시 지나가자 완전히 죽은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어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그 나무가 어제 하루 사이에 말랐다면 주님이 어제 행했던 일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나무를 저주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야단치며 환전상과 장사치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이권을 챙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논의했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기이하게 여기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18 절) 유대 대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달리 권세 있다고 인정했기에 자칫 주님만 따를 것을 염려 시기했던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열매가 없을 줄 아시고도 제자들이 보고 듣도록 나무에 저주의 선포를 했고 곧바로 성전에서 장사치를 야단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주님께 저주 받아 죽은 무화과나무가 바로 형식과 위선에 빠지고 부정한 재물을 탐할 만큼 부패한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어렵듯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다 이뤄진다고 했는데 그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과 그 사역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동물 희생제사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대신에 이제 곧 당신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죄인들이 의롭게 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과장된 표현을 한 의도도 성전제도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시기와 장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시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고난주간의 전반입니다. 베다니에 머물면서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마지막까지 천국 복음을 강론하고 있던 때입니다.

장소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고 베다니는 그보다 훨씬 낮은 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특별히 성안 모리아 언덕에 위치한 성전건물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주님이 이 산이라고 지시대명사 this 를 붙여서 말했으니까 모든 산들을 뜻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언덕을 지정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바다도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갈릴리 바다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며 말라버리게 만든 이유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산은 예루살렘 성중에 우뚝 솟아있는 유대교 성전으로 무너뜨려야 할 세상의 사악한 왕국이었습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하듯이 예수님의 새 시대가 오기를 믿고 의심치 않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산이 바다에 빠지듯이 유대의 썩은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마 24:2)고 예언했고 AD70 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비유했기에 당시 그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어렵게 저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사건을 당시의 언어로 저작되었기에 시공간의 차이가 나서 어렵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의 이야기이므로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전후맥락을 찬찬히 상고하면 당시 사건을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

따라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도 난해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는 것은 유대의 악한 세력이 무너지는 사건을 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모범기도대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하늘에서 이뤄진 뜻이 됩니다.

이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뤄진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될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전혀 모순이 없는 너무나 지당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미리부터 무조건 응답된다고 확신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변되는 세속의 사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진리를 몰라도 우리 스스로 책정한 기도 제목들은 아무리 신앙연륜이 깊거나 기도의 은사를 받은 신자라도 온전한 확신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정확한 뜻은 알아보려 하지 않고 무엇이든 이뤄질 줄 믿고 기도만 하려합니다. 하나님도 신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안 좋아 하시니까 막연히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뤄주겠지라고 여깁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도 의지적으로 부인하고 이뤄질 줄 믿습시다라고 힘을 잔뜩 주어서 반복해 외칩니다. 원래 겁이 많은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듯이 스스로 확신이 안 선다는 반증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위한 기도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심령에 평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제목들을 미리 혹은 기도하는 중에라도 천천히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과연 이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자기 욕심이나 자랑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자기 문제는 자기가 잘 아니까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애매모호한 것들은 그런 구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이 제목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에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제목들은 받은 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고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최대한 막아주시고 무력을 앞세운 독재자는 무너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천하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온 세계의 신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때와 방식은 그분께 달렸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해주십니다.

## 신자부터 징계하실 하나님

따져볼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족하게 이해했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이 예루살렘 언덕에 세워진 큰 건물들을 의미한다고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는 로마 총독 관저와 군대가 주둔하는 건물도 성전보다 더 높은 곳에 함께 서있었습니다.

제자들로선 유대의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망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게 로마제국의 강압적인 식민지 통치부터 종식되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다윗 왕국의 현실적 영광을 회복시켜 주리라 기대하며 바다에 빠져야 할 산을 로마멸망에 초점을 두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다가올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지 고난 주간 중에도 마지막까지 다투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이 돌아가신지 한 세대만인 AD 70 년에 멸망했으나 로마 제국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후로도 몇 백 년간이나 번창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니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제자들의 메시아 개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로마를 계속 번창하도록 놓아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 나라와 똑같이 행한 것을 더 엄격히 다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현실의 풍요와 안락만을 추구하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심판 원칙은 모든 세대에 동일하므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답습한다면 우리들부터 먼저 징계 심판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뜻을 본문에서 정확히 밝혀놓았습니다. 전체 맥락과는 뜬금없어 보이는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25 절)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뜻하므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로 전날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바꾸었다고 야단친 이유가 성전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 소명대로 기도해야 다 이뤄진다.

따라서 주님은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하늘에서 두 가지 뜻이 이미 이뤄졌다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럼에도 신자들은 끝까지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소명이었고 그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울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음부를 이기는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악한 세력을 매고 그에 미혹된 죄인들의 죄를 풀라고 명하신 모든 세대 모든 교회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했고 또 기도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도 주님은 당신을 죽음으로 이끈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 처형을 주도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구원 받은 주님의 종들도 나왔습니다.

원죄 하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성령이 강림해 그 심령에 견고히 자리 잡은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경로를 열어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영적 시체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구원 후에도 신자에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 있어서 평생을 두고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주제에 동료 성도는 물론 불신자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십자가상의 사형수 죄인까지 용서해주었는데 인간 신자가 다른 인간을 정죄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훨씬 더 사악한 로마제국보다 유대 성전과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듯이 신자들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유대인들을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주범으로 보고 멀리 핍박하며 반유대주의를 형성했습니다. 창세기의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여서 아프리카 같은 미개국들을 무력으로 정복 수탈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동포들이 공산독재 정권에 계속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것도 기복주의로 타락한 남한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받은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뤄진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 결론으로 인해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본문 결론대로 우선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무슨 죄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은 줄 믿으면 됩니다. 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면 다 받은 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서 열심히 일을 찾아서 성실히 행하면 반드시 생활이 안정됩니다. 자기 형편에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적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차츰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도 진심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그 쪽에서 먼저 찾아와 사죄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말씀에 정진하고 자신의 성품을 주님을 닮게 거룩하게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뤄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세상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전하여서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초부터 첫째로 확정된 뜻입니다. 신자가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웃에게 주님의 긍휼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반드시 이뤄주십니다.

간혹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니까 받은 줄 믿습시다라고 본문말씀만 암송하면서 어서 빨리 응답해달라고 떼를 쓰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사탄의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취지게 해달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는 뜻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냥 본문 말씀만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주문과 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내용부터 정말로 진지하고도 솔직하게 점검해보면 스스로도 많이 놀랄 것입니다. 거의 전부가 자신에 관한 기도뿐이고 당장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기도제목마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 받아야 한다는 확신 최소한 그런 열망이 담긴 제목은 한둘만 남을 것인데 그것을 받은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예컨대 돈이 천만 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꼭 주셔야 한다는 이유와 근거를 확실히 댈 수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죄, 욕심, 의, 자랑, 교만 등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정말로 하늘에서 이뤄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리 없지 않습니까?

### (눅 11:5-13)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5-13)



## 한국교회에 만연한 기도만능주의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시일에 급속도로 교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마도 평일의 새벽 예배가 교회 공적모임으로 행하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떤 큰일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일종의 기도만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권능에 걸맞게 이왕이면 기도제목도 최대한 크게 작성하라고 가르칩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도 그런 기도만능주의가 큰 몫을 합니다. 큰 고난에 빠진 이웃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새벽예배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권유합니다. 이웃은 너무나 힘든 차라 밀쳐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따라 나와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귀해서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심하니까 교인이 된 후에도 기도만능주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본문 같은 말씀이 그런 인식이 더 확고해지는데 일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 반드시 응답된다고 이해하고 치우기 때문입니다. 기도만능주의라고 표현한 까닭은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신념체계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탄죽을 걸면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믿음에 하자가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만능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로운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위치나 권능을 대신하게 되면 우상입니다.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이뤄지면 사실상 기도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꼴입니다.

끈질기게만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끈질김이라는 인간의 성격 내지 기질이 응답을 잘 받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그럼 인내심이 약한 자의 기도는 아무래도 응답받기 힘들다는 이상한 결론에 빠지고 기독교 신앙이 심리학 수준으로 격하되어 버립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직 미약하여서 때로는 자기 욕심이 기도에 개입되어도 진심으로 당신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기도를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응답해주십니다. 그 응답 중에는 놀랍게도 끝까지 신자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잘못된 기도임을 어서 빨리 깨달으라는 신호 내지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 첫째 비유의 뜻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마 13:34)라고 할 정도로 거의 매번 비유를 사용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비유란 영적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평소에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을 인용해 그림언어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를 두고 ‘보름달 같이 예쁘다’라고 말하면 그녀의 미모를 보름달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예쁜 데도 수많은 모습이 있는데 보름달의 특성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둥그런 얼굴에 미소가 너무 밝아서 모든 이에게 호감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도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친절하게도 곧바로 이어서 비유를 통해 강조하려는 진리를 풀어서 설명해주었습니다. 첫째는 5-7 절이 비유이고 8-10 절이 진리이며, 둘째는 11-12 절이 비유이고 13 절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결론으로 덧붙인 영적인 진리를 정확히 알려면 그 앞부분의 비유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문이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되므로 반드시 주님이 앞에서 이르신 말씀과 연결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제자들이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자(1 절) 주님은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가 산상수훈에서 기록한 것과 같은데 누가 판 주기도문인 셈입니다. 이런 문맥상의 흐름을 감안하면 본문을 신자들이 임의로 행하는 모든 기도에 확대 적용해선 안 되고 주님이 앞에서 가르친 대로 기도할 때에 간청하면 반드시 이뤄진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비유는 여행 중에 벼이 찾아왔는데(6 절) 먹을 것이 없어서 밤중에 다른 벼를 찾아가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5 절)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와 밤에 찾아온 친구끼리도 친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비유의 주인공과 떡을 빌려줄 친구와는 밤중에 찾아가서 그런 일을 부탁할 만큼 평소에 막역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떡 세 덩이란 겨우 허기만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한 소년이 먹을 한 끼 도시락의 양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지 않습니까? 비유의 주인공에게 그런 정도 음식도 남아 있지 않다면 매일매일 끼니를 이어가기 바쁜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앞에서 가르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처지입니다.

찾아간 그 친구가 보일 반응에 대한 주님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의 문화와 관습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서민의 가옥 구조는 거의 대부분 방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방 하나에서 전 식구가 함께 누워 자는 식이라 밤중에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부산한 기척이 나고 또 떡을 찾으려면 불을 켜야 하니까 온 식구가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는 주인공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방이 하나뿐인 집에 사니까 크게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비유의 끝에 반어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식구가 다 깨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친구 사이인지라 반드시 일어나서 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베풀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8 절)고 앞선 내용과는 상충되는 듯한 의미로 비유를 풀어주었습니다. 마치 친구 사이 때문이 아니라 끈질기게 간청하므로 내키지 않는데도 귀찮아서라도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당사자들을 벗이라고 표현했기에 언제든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라고 전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고 또 당연히 빌려준다는 사실을 미리 밝혔습니다. 그리고 딱 세 덩이는 너무나 절실한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잘 모르는 사람의 집이라도 가서 간청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초점은 친구 사이인가 여부가 아니라 그 요구가 정말로 들어주지 않고는 안 될 만한 간절한 진정성을 가졌느냐에 모입니다. 간절함이란 항상 진실함을 수반합니다. 모든 인간이 비록 원죄로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흔적이 남아 있기에 거짓을 말하면 반드시 표가 나게 됩니다. 간청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체면 염치 차리지 않고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당하더라도 꼭 말해야 할 사항을 진심을 담아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밤중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 날 중에 반드시 도착하려고 매우 서둘렀다는 뜻입니다. 저녁은 물론 점심까지 굶었을 수 있습니다. 딱 세 덩이는 도저히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될 그런 딱한 처지를 말합니다. 첫째 비유에 대한 주님의 결론은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간청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친구 사이가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도와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간청하는 기도란?

그런 간청함을 기도에 적용하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중도에 그만둔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수님 당시에는 굶어죽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과제이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양식뿐 아니라 현실 삶에서 그런 절실한 문제는 범사를 거룩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원죄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 사회는 시기 분쟁 갈등 죄악 고난 등이 끊일 새가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간청해야할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앞에서 가르치신 대로 모범적인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비추면 이 비유에서의 간청은 말씀드린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외에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차원에도 해당됩니다. 비유 자체로는 죄를 지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므로 지금 떡이 없을 정도의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돕는 것이므로 같은 맥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결론(9,10 절)도 비유는 물론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이지 “받으라, 받을 수 있다, 주신다.” 등등이 아닙니다. 거기다 받는 것도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가 아닙니다. 본문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듯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굳이 의미를 나눠서 따질 필요는 없고 세 번이나 반복할 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없다고 쉽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위급한 경우가 생겨야만 기도해선 안 되고 호흡처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평소에 참여하지 않던 신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목사님들은 “저 집에 긴급한 일이 생겼구나!”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십중팔구 그런 짐작이 맞아떨어집니다.

바꿔 말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요구만 하면 사주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정확히 분별하여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려고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신자가 “제 힘만으로는 구하지도 찾지도 열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영적진리를 찾게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지금 저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비유가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이뤄진 뜻이 땅에 이뤄지길 열정적으로 소망하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끼니를 잊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을 간절히 도와주고 싶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란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이웃은 물론이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동료 인간들을 베풀듯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진심과 열정이 있다면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했다면 안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남은 문제는 시간과 방식뿐이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 둘째 비유의 뜻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비유가 그러하듯이 본문도 참으로 정미합니다. 첫째 친구에게 떡을 빌리는 비유는 기도할 내용과 기도하는 자의 영적상태와 기도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우선적으로 이웃의 어려움 아픔 상처 죄악 등이고 기도하는 자세는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방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그런 신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주시는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친구 사이에 빚대었는데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빚대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된 관계와 또 그런 믿음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친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무엇이든 뻔뻔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면 아직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고 권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한 것은 그 앞의 설명에 바탕을 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며 모든 시험을 받았으나 죄가 없는 완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순전히 받아들이신 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에 장애가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다 제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심으로 성전에서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습니다. 기자는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사해주고 나아가 은혜를 베푸시는 지성소 언약궤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히 10:19,20)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성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어폐가 있지만 그래서 주님만이 신자더러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얼마든지 뻔뻔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비유에선 떡 세 개라고 했고 둘째 비유에선 아들이 물고기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유대인들의 일상적 식사를 말하는데 뭔가 연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 전체 규모는 엄청났어도 사실은 종일 끼니를 굶어가며 당신의 설교를 들은 각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한 끼의 양식이었을 뿐입니다. 뱀이나 전갈도 황량한 유대 땅에선 예사로 접하는 동물입니다.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되고 실감나는 사물들입니다.

주님은 앞에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친 일용할 양식에 잇대어서 기도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직접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한 후에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신자들더러 그렇게 끼니를 잊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의 심정에서 자기 자식처럼 안타까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 마치 자기 아버지에게 요청하듯이 간절히 또 담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은 사랑합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뱀을 주지 않으며, 생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은 주지는 않는다고 비유했습니다.(11,12 절) 마찬가지로 주님은 반어법을 사용했기에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신자를 사랑하십니다.

신자가 무엇을 기도하든 결코 부정적인 것은 주지 않고 반드시 필요하면서 유익한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자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들어주면 신자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신자로선 그대로 안 되면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뜨겁게 기도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신자에게 나쁘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좋은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사탕 달라고 계속 보채어도 부모는 건강식을 억지로라도 먹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면 고래를 준다든지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낳는 암컷 생선을 준다고는 하지 않았습시다. 거의 모든 신자가 기도할 때에 기대하는 수십 배의 응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모든 가구에 가족 숫자에 맞춰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주셨으며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평소의 두 배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약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거두면 썩어서 냄새가 남게 했습니다.

##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본문과 동일한 기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지만(마 7:11,12) 구한 것보다 질적 양적으로 수십 배 좋은 것이라고 오해해선 안 됩니다. 우선 마태도 누가와 똑같이 구하는 것마다 주시지 않고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했으면 마태가 말하는 좋은 것은 질적 양적으로 더 우월한 것이라고 간주해도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하는데 누가는 마태가 말한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밝혔습시다. 신자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가장 유익하므로 모든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도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므로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우선 본문은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치신 주기도문과 연결되므로 그런 기도를 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성령을 받기 위해선 하늘에서 이뤄진 뜻을 땅에서도 이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뤄진 뜻은 무엇입니까? 신자와 신자가 속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반드시 임하고 신자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주시므로 신자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 하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이미 이뤄진 뜻이므로 그 응답도 당연히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은 기도한 대로 받은 줄 믿으라고 했습니다. 굳이 기도의 제목을 다른 것에 둘 필요가 없고 이것 외에 기도의 열매를 다른 것으로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컨대 기도 응답이 하늘에서 이미 이뤄진 그대로 되므로 신자가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그 정성이 가룩해 수십 배로 질과 양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간섭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신자에게 내주해서 평생토록 함께하십니다. 기도하면 또 다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교파가 주장하듯이 제 2의 성령세례를 받아서 방언 같은 은사를 실현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신자를 도와서 기도의 열매가 하늘에서 이뤄진 대로 되도록 당신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서 이미 이뤄진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분별력으로 인해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내용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하든지 만약 잘못되었다면 포기하게 이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데 장애가 되는 교만, 욕심, 고집, 허물, 죄악 등이 있으면 먼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신자더러 진정한 회개로 이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된 형제의 죄도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들게 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인내심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조달할 직장을 얻게 해주고 신자답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현실에서 아무리 궁핍하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 핍박을 당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명할 수 있는 담력도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소원과 기회와 자원을 부어주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식처럼 안타까운 심정이 저절로 들고 도와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긍휼한 심정으로 채워줍니다. 최소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본성은 그럴 수 없어도 성령이 다른 이의 형편을 이해 타산적으로 따지지 않고 거저 후히 주도록 이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자의 기도할 마음과 제목과 방식은 물론 그 실천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되게끔 주관해주십니다.

마태도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한 후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니라.”(마 7:12)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뜻하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남을 대접하는 만큼 남에게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천대하면 자기도 천대 받고 남을 헤아리면 자기도 헤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친 후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도할 내용을 남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웃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이웃을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말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신자를 잘 대접하게끔 인도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다른 이를 축복해주어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그를 축복해줄 것이라고 언약한 그대로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권능을 갖는지 정확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고 하나님이 신자들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힘들 때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뤄진 뜻을 이 땅에서도 당신께서 실현하는 거룩한 사역에 신자더러 영광스럽게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은 기도를 얼마나 끈질기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고 그분의 뜻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에 따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면 당신의 방식대로 이뤄질 때까지 인내 순종 실천할 수 있게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의 종이 되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요컨대 기도 제목은 반드시 또 가장 먼저 불신 이웃의, 최소한 친구의 아픔을 눈물로 가슴에 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요 14:12-15) 기도하면 예수님보다 큰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2-14)

##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완결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에도 유다가 스승을 팔려고 나간 후부터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었습니다. 주님으로선 제자들과 보내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라 유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노쇠하여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당신을 죽이려는 사악한 계략은 물론 방금 유다가 작별인사도 나누지 않고 당신을 팔러 나갔다는 사실까지 다 아시고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십자가 제물로 바치려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정말 말씀 하나하나에 당신의 피가 묻어나오는 절규와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통칭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며 13:31 에서 시작해서 17 장 끝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기도에 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본문은 그 첫 번째로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설교였으므로 본문도 예수님이 공사역 중에 기도에 관해 가르쳐왔던 내용의 절정이자 완결판이 됩니다. 신자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런 바탕에서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당신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아무리 성경이 증언했어도 주님보다 더 큰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있으니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 겸손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교회생활이 과연 주님의 큰일인지 따져봐야 하고 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입으로 분명히 기도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주님은 대화와 논쟁에서도 당신이 의도하신대로 자연스럽게 논리를 전개시키며 강조하려는 주제도 뚜렷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놀랍고도 엄청난 약속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앞뒤 문맥의 흐름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이상아룻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화는 실제 유언처럼 당신께서 가는 곳에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로 시작합니다.(요 13:31-35) 그러자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서 따라가겠다고 나섰고 주님은 새벽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당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해주었습니다.(요 13:36-38) 제자들 모두 베드로와 같은 각오일 텐데 주님의 이 예언으로 전체 분위기가 아주 어색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선 제자들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가르친 말씀을 여전히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와서 그들을 영접하여 그곳으로 데리고 가니까 남아 있는 동안에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당신을 믿으라고 다짐해주었습니다. 나아가 당신께서 가는 곳으로 이르는 길을 너희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요 14:1-4)

그러자 의심 많은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잘 알기에 이 질문이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나 크게 긴장되는 경우에 맞닥뜨리면 머리가 하얗게 변해 이성적 추론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제자들에게겐 지금이 딱 그러한 상태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수차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지금도 스승에게서 비장한 기색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 또는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출신 고향이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이 땅과 다른 차원인 줄은 짐작되지만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죽으신다면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것인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 마지막 부활 때까지 아무 의식 없이 자는 듯이 기다린다고 믿었으니 더더욱 가는 곳과 가는 길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다락방 강화의 첫마디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요 13:31)라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지도 모르는데 그 일로 당신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니 처음부터 난해하기만 합니다.

자기들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야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는 물론 스승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승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다 지난 삼년 간 추종한 것이 억울하고 슬프고 화까지 나서 괜히 통명스레 트집 잡았을 수 있습니다. 도마의 지능이 낮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의심이 많아서 판단력까지 낮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주님과 제자들의 문답

도마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도 제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로마 경비대와 총독 관저로 야간 기습 작전을 하려면 이런 저런 길로 쳐들어가고 그 전에 군대를 이렇게 저렇게 조직하자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선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6 절) 말미암는다는 헬라원어 ‘디아’는 광범위한 용례가 있지만 크게 원인과 통로를 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스승이 말하는 영광이 자기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현실적 회복이 아니라 자기들 각 자의 영원한 구원이고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줄 어렵듯이 눈치 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도 당신을 통해야만 하늘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스승을 따라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한다는 뜻인지 오히려 도마가 질문하기 전보다 생각이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줄 아시고 제자들더러 당신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 수 있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설명해줍니다.(7 절) 너희가 당신을 정확히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 수 있었다고 했으니 그동안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러 번 실현해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당신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그곳으로 가는 길도 모른다고 깨우쳐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나서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족하겠다고 요청합니다.(8 절) 주님은 방금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가르쳤는데 다시 같은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9 절)고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아버지와 당신의 하나 되심을 설명한 후에 그 사실을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10,11 절)

지금 시종일관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로 서로 하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은 서론에서부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방족속은 당연하지만 유대인들마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하고 행동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행한 바였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삼년간 함께 기거하며 바로 곁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지켜봤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인데도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몰랐고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인간으로 와있으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행한 일을 잘 따져보라고 덧붙였습니다.(11 절) 지금은 삼년의 공사역을 마친 때이므로 당신의 부활 빼고는 모든 기적을 행하신 후입니다. 문둥병자, 귀신들린 자, 앓은뱅이, 장님 등 불치병을 고친 것은 약과입니다. 이만 명이 넘는 사람을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이셨고,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재우고 당신께서도 물 위를 걸었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있기는커녕 흉내도 못내는 이적들입니다. 인간생명과 자연현상을 당신의 뜻대로 생성 소멸 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분뿐입니다. 잠시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주님보다 큰일을 하려면?

그리고 나서 당신을 믿는 자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본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로 끝내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그래서 다 응답된다면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특이합니다.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12 절) 제자들은 스승이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슬프고 두려운데 주님은 거꾸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슬픔과 염려를 그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수 있는 까닭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행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일’의 원어는 사역(works)이라는 명사로 굳이 시제로 따지자면 영원한 진리를 의미하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한 한 문장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고 과거형으로 설명해준 것입니다.(7 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일어날 일도 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럼 슬픔과 염려의 기간도 만 이틀로 끝날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보면 아버지 집으로 자기들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는 가르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당신 안에 당신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도마와 빌립이 주님에 대해 갖고 있던 것과 같은 의문들이 다 해소되어진 순전한 믿음의 바탕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진리로 참 생명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으므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먼저 보고 알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성경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 특별히 부활 전과 이후로 모든 면에서 확연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까지 나누며 직접 교제했으니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의 문자적 기록만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신자가 행할 수 있다고 약속한 큰일의 성격부터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큰일이 산이 바다에 빠지거나 불치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등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은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면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도 일으켜 주시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비상사태에 한정됩니다. 본문 안에서 주님은 어떤 것이 큰일인지 설명해주었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에 관해서도 다락방 강화를 시작할 때 이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다시 상기시켜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새 계명을 충분히 실현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큰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오늘날의 신자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선 주님보다 얼마든지 더 큰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소원하는 모든 일을 간절히 기도하면 그대로 이뤄준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 새 계명을 지키려면?

따져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남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에서부터 그 기본 맥락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8)는 구체적인 계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면서 그와 맺은 언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선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몰라봐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기에 온전한 참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누가 큰지 마지막까지 서로 다투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한 이유는 예수님은 새 언약에 기초한 것이라 새 계명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31:34,35)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 또한 새 언약이 아니라 구약이 시종일관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가 새 언약이라고 칭한 이유 셋을 스스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고 둘째는 그래서 이웃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모두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되고 셋째는 하나님도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칭한 것도 이 언약과 같은 맥락입니다. 돌 판에 새겨진 율법에도 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적혔으나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에 이제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돌아가신 당신을 보고 새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면 성경을 통해 당신을 알고 하나님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현하려고 기도하고 실제로 헌신하는 신자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는 당연히 없고 하늘에 거처할 집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마음에 새김으로서 새 언약과 새 계명이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그 심령이 실제로 거듭난 신자라야 새 언약에 동참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런 신자라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바로 이어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고(16 절 이하) 전체 다락방 강화의 주제도 성령의 오심과 그 역할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대신에 성령을 보낼 테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에 찌든 인간들이 하늘의 처소에 올라갈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인 니고데모도 구원의 길에 대해 예수님께 물으러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사실은 성령님이 죄인의 내면에 굳어진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 이성과 종교성만으로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시인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져야만 하고 그 심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진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스승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부인했으며 자신들의 그런 영적무지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 예수님의 제자다운 표시가 나는가?

유감스럽게도 작금 교인들이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대속죽음의 진리 은혜 권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복음의 의미마저 정확히 모르고 성경도 진지하게 읽어볼 시도조차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교회에 충성 봉사했다는 구실로 그저 뜨겁게 기도하면 고난이 해결되고 현실적 복을 받는다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열성으로 교회를 잘 섬겨서 복 받으려는 교인은 많으나 성령으로 거듭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신자는 드뭅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번창하는 온갖 부정 불법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할 때와 방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이 있는 신자들이 교회를 멀리 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 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당신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모이지 않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집에 혼자 지내면 하나님의 큰일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고 돈과 자원 등이 많아야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유언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할 기회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자가 많아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은 언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랍비의 교육법은 스승이 말하고 행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스승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면 당신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신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보다 큰일도 당연히 주님이 하신 일을 뜻합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을 확신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행하신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안일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만 진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교제 위로 치유 구원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두고 신자가 소원하는 일을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뤄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늘에서 이뤄진 뜻을 이 땅에 이뤄지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 당신부터 하늘에서 이미 이뤄진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님보다 더 큰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부터 오순절 한 번의 설교로 삼천 명을 회심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교리와 체계를 확립시킨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뵈기 전에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컨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고 펄펄 뛰던 그였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처럼 사흘 간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안의 견고한 사탄의 진이 성령에 의해서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진리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제야 정확하게 보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자신을 위한 처소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곳을 가는 길도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초기 기독교는 거의 전부 그의 선교 사역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세 번의 선교여행으로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순전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쳤으며 신약성경의 반을 저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온갖 멸시 고난 핍박을 받았으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보다 더 큰일을 했고 또 큰일을 하느라 주님과 방불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갔기에 주님이 겪은 고난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십자가 순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특출한 사람은 아닙니다. 죄의 법에 수시로 무너지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듯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넘어졌던 그 자리에 주저 않아 있지 않고 구원 후에도 자기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저서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자기를 성령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이끈다고 고백했습니다.(롬 7:21-8:4)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확신이 생기고 그 후에는 성령님이 내주해주십니다. 회심 이후로는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니 신자도 거룩해지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신자를 흔들 것 하나도 없다면 신자로선 실제로 거룩하게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온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에 사로 잡혀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정말로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고귀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따라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겠다는 헌신과 실천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연약해 수시로 세상과 죄악에 저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절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주셔서 반드시 다시 회개와 기도와 헌신과 실천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끝까지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피를 토하듯 비장한 심정으로 본문의 약속을 주셨기에 신자도 정말로 비장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만 관건입니다. 요컨대 주님처럼 세상에서 소외된 비천한 자는 물론 사탄에 미혹된 심령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긍휼한 심정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 (창 12:1-3)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해도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1-3)



## 신자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

지난주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홉 번,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섯 번, 총 14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신자들이 그동안 주로 기도의 능력과 열매만 강조하는 가르침만 받아왔기에 정작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무슨 제목이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적용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기도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간단히 리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바탕에서만 기도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서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관해주심으로써 그의 믿음부터 성장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그의 기도의 내용과 방식도 바뀌어나갔는데 자신의 현실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데서 점점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 없이 순종할 정도로 믿음과 기도가 성숙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성숙과정은 간략하게 '나에게 달라'(give me), '나를 변화시켜 달라'(change me), '나를 쓰임 받게 해 달라'(use me)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 세 가지 기도뿐이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다는 예수님의 네 가지 약속에 대해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들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넷은 첫째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둘째 기도하기 전에 미리 받은 줄 믿으라는 것과, 셋째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과, 넷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응답해주신다고 해서 신자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규정해놓은 범위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배웠고 또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열 네 번의 설교를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하늘에서 이뤄진 뜻이 땅에서도 이뤄지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했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야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합심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실천적 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상으로 큰일을 한 사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의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대로 이방지역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율법의 행위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진리를 확립하며 기독교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나 깨나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자기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만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근거는 성령님의 간섭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새사람으로 거듭났고 그 후로도 성령님이 내주해서 소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울처럼 실제로 거듭난 신자로 주님을 따라 살면서 자신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더 크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소명의 뜻도 모르는 신자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위임 했고 또 그래서 십자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지만 일반 신자에게 바라는 바는 다르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아직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신자들도 꽤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라고 간주합니다. 기도도 자신의 현재 처한 문제와 고난을 해결 받거나 자기가 소망하고 계획한 일을 잘 수행하려는 목적으로만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사역자든 일반 신자이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바울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내용과 처한 상황만 다를 뿐입니다. 거기다 공적으로 종교핍박이 없는 한국과 미국 같은 곳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유지하려면 알게 모르게

온갖 시험 장애 훼방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엄격히 말해 믿음의 여정은 소명의 실현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 성숙은커녕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불러 나올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선 모든 신자는 신자가 될 때부터 이미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부터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영어로는 calling 이며, 한자어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부른다는 소(召)에 명령이라는 명(命)을 붙여서 특정 목적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실현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지시받은 내용이 바로 자신의 소명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에게 여호와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1 절)고 명하셨습니다. 그 후의 2-3 절은 그 소명대로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뤄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에 적용하면 1 절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럼 그 응답은 2-3 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생활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 신자의 소명이 되려면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만 부름 받은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종교적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다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곳은 갈대아 우르이고 그가 가야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과 성막 밖에 있던 그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떠나온 곳과 가야갈 곳의 현실적 상황에 전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두 곳 다 우상숭배로 배교하여서 도덕적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긴 똑같았습니다.

혹시라도 가나안 땅을 두고 여호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출 3:8)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아주 풍요한 땅이라고 오해해선 안 됩니다. 사백 년간 노예 살이 했던 애굽의 비옥한 나일 강 삼각주는 밀의 최대산지로서 고대의 식량창고였습니다. 그와 달리 가나안은 양봉과 목축이 주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황량한 광야에 사막기후라는 뜻이지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신정국가를 세워줄 것이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국가 애굽에서의 삶과는 그 질과 기쁨이 전혀 다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당신께서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여건만 따지면 떠나온 바벨론 지역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밖의 큰 도시에 있던 그를 불러내어서 다시 교회 밖의 빈민촌으로 돌려보낸 셈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당신의 지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 장소, 여건, 인종, 문화, 관습 등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행해야만 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 대적했거나 잘 몰랐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서 알게 된 사람으로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야 할 본토는 나라, 인종, 민족, 언어 등 그의 신분적인 정체성을 뜻합니다. 친척은 그가 살아가는 사회적 배경과 쌓아온 인간관계입니다. 아비 집은 개인적인 삶을 책임져 주는 자원과 근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특유의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는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굳이 세분해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떠나라는 것은 그 때까지 자기 삶의 안전 풍요 만족 행복 등을 책임져주던, 정확하게는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외부적 요소 등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것들을 우선적 집중적으로 추구하여 의존하려 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의 자신의 형통과 출세였으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뜻을 실현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니까 반드시 혼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 각자에 대한 완전한 계획과 뜻을 이미 마련해놓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 동행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자 한 사람만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대우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신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그분 뜻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의 실현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 되어야만 합니다. 첫째로 이전의 삶이 철두철미 실패이자 헛된 것이라는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자기 지정의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며 그 중에서도 감정에 우선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떤 대상이 싫지 않은 이상 굳이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좋다는 체험 내지 그런 확신이 서야만 합니다. 고대에 낯선 외국 땅으로 가족만 데리고 홀로 떠나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떠나는 곳이 너무 싫고 가야할 곳이 너무 좋지 않고는 절대로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그런 영적 실패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결단이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그가 떠난 곳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철저히 타락했고 특별히 우르는 도시 이름이 불이라는 뜻이듯이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의 온갖 추악하고 음란하며 폭력적인 죄악들을 일상적으로 접하다보니 영적으로 아주 괴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마치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 죄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또 구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영적인 찢림이 들고 기도하게 된 것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계속해서 그를 준비시키며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본문의 계시를 주었고 그도 그 부름을 받아 기쁨과 평강과 확신이 자기 심령에 충만히 채워졌을 것입니다.

## 모든 신자의 본질적 소명

지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를 한 번 회상해보십시오. 그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만 높이려고 살았던 것들이 철두철미 헛되고 헛되었다고 절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 사이에 온갖 잘못과 죄악을 저질렀고 도무지 그 죄를 스스로 씻을 길이 없음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인생을 꾸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령님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회심할 때에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진정한 회개가 속에서 붓물 터지듯이 분출합니다. 별다른 선행을 한 적이 없어서 아무리 따져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거저주시는 구원이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떻게 또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몰랐던 그 전의 자기와 알고 난 이후의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자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전 삶이 너무 싫어졌고 또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시 주관해줄 삶이 너무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스스로 만족하고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에서 완전히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충성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인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었으나 범사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 판단 실천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요컨대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이전 삶에서 불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가장 본질적인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연령, 직업, 인종, 경험, 신분, 지성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과 일대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안으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주셨고 무엇보다 어떤 고난에도 위로 격려해줄 인생의 동반자로서 인간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신자에게 평생토록 내주해주십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간섭해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가능하므로 신자가 자기 지정의로는 인식을 못해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지금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시고 있다는 체험적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껏 예수님과 그 가르침이 이해도 안 되고 까닭 없이 싫었는데 어느 샌가 너무 좋아지고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첫째가는 소명은 바로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 최소한 전도의 은사를 맡은 신자에게만 해당되지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자신에겐 그런 은사는 물론 그럴만한 주접도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독교가 신용을 너무 잃어서 예수 믿으시라는 말도 꺼내기 부끄럽고 두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문 사역자의 몫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그 새로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절감합니다. 그래서 실천은 더딜지라도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을 다른 이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듭난 체험이 없어서 새사람으로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아직 잘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직 소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즉, 그분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면 자연스레 이웃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처럼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 바뀌어진 신분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신자라도 막상 기도하려면 자신의 문제에 집중 내지 우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의식을 가지는데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일단은 무엇이든 생각나고 소망하고 해결하고 싶은 일들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일을 그분께 의탁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주부라면 남편과 자식들의 문제를 위해서, 학생이라면 더욱 공부 열심히 하여 보장된 장래를 위해서,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실적을 올려서 좋은 인사고과를 받아서 승진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나 사업가라면 어떻게든 자신의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소망하고 계획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신자가 현실적 고난에 빠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시며 일부러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괴롭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신자의 가정에 갈등과 환난이 생기거나, 신자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고 불량해지거나, 신자 직장인이 회사 업무에 열등하여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신자 사업자가 부도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도 당장에 닥친 현실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더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 지시대로 따랐을 때 현실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약속해주었습니다. 영적인 평강과 기쁨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겠다거나 세상 최고의 종교가나 도덕군자로 세워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사실상 같습니다.

본문 사건을 통해서 신자가 항상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전과 달라진 신분입니다. 신자의 육신은 현실적으로는 세상 안에 살아야 하지만 그 영혼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바라며 살아가는 불신자 때와는 달라진 이중적인 신분입니다. 세상 안에서 외적으로 의식주를 조달하는 일은 지금까지 방식대로 행하되 한 인격체



전부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아는 사람답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서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덧붙인 것입니다. 당시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곤 아브라함뿐이었으므로 그가 정말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답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면 다른 모든 이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지어진 혼적으로 기본적인 양심과 종교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한 삶을 즐기더라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이 옳고 더 좋다는 것을 무의식중에라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성령의 간섭으로 우르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영적 찢림을 받았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였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신부 감을 구하러가면서 여호와께 진심어린 기도를 한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종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자기 삶의 롤 모델로 삼았을 것입니다.

요컨대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만 높이지 않고 다른 이의 아픔을 보살폈기에 그들로부터 자기를 축복하게끔 이끈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현실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도 그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맡긴 소명에 맞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본인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해준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를 보고도 왜 저렇게 바보 같이 사느냐, 세상 쾌락과 호사를 맘껏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배척하면 하나님도 배척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를 본받으려 드는 모습이 늘어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자식들 또한 그의 그런 믿음을 본받을 테니까 후손들이 창성케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여전히 현실적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실현된 그분의 뜻이 다르며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 반응하는 자세도 달라진 것입니다.

##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마찬가지로 가정주부는 남편과 자식 현실적 문제들을 주부 자신의 욕심 감정 계획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선 안 됩니다. 남편과 자식 본인들이 정말로 원하고 그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방향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하면서 말입니다.

학생도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단 자신의 출세 형통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특별히 이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사업가나 어떤 직업을 갖든지 자기 하는 일을 성실히 형통하게하기 위해서 기도하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사람에게 거룩한 영적 찰림이 생기고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로 시선을 돌리게끔 기도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가장 본질적이고 공통적인 소명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그럼 또 그런 차원에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해주십니다.

솔직히 한 번 잘 따져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금만큼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행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교세는 오히려 줄고 나아가 멸시 비난 반감은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사랑했기에 작은 그리스도라는 별칭으로 불렸고 생명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절대적 헌신에 이방의 불신자들이 감동하여 기독교가 염병처럼 번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자들이 삶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영적 찰림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불러 나왔지만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야 합니다. 모든 현실 여건은 동일하되 사람만 이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자신의 안전, 만족, 행복, 기쁨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찾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갈수록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탄에게 미혹된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굳이 경건하고 신령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모든 현실적 문제부터 하나님의 일이자 자기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하나님이 맡긴 소명입니다. 그 일을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시리즈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명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심지어 몰라도 되고 자신의 현실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오직 하나만 바뀌야 하는데 정말로 신자답게 살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기도도 그 모든 문제를 신자답게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듭난 신자라면 사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다운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미뤘왔지만 알고 있는 대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한대로 끈질기게 실천만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샌가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